

2024 / vol. 29

# 무등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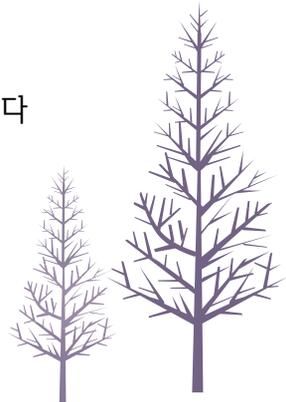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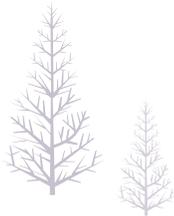
無等文化



# 세상은 Y

| 정순영

나무의 생각이 나뭇가지를 키운다  
나무의 생각은 Y, Y는 Yes  
햇살의 혀가 목을 간지럽혀도  
별빛이 팔을 내밀어 허리를 감아도  
바람이 가슴을 당겨도  
그래, 하면서 나무는 긍정으로 산다  
긍정은 무슨 빛깔일까  
달빛 무성하고 햇살 다정할 때면 나무는  
하늘에 올라 뿌리를 내린다  
하늘이 푸르게 나부낀다  
문득 길 가던 사람이 그늘에 들면 금방 푸른  
빛에 젖어든다  
혈관은 Y, 몸 속에 나무가 뻗는다  
나는 나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YYY  
내뿜는 날숨이 나뭇잎처럼 싱싱하다  
날숨에 허공이 흔들린다  
세상은 Y y Y y  
쭉쭉 뻗어나가는 평화의 가지가 푸르다



## 정순영

- 시와 사람 신인상, 시조시학 시조 신인상
- 광주광역시문인협회회원, 광주시인협회회원
- 나주문인협회회원, 화순문인협회회원
- 아시아서석시맥회원

2024 / vol. 29

무등문화  
無等文化

# 문화비전 선언문

Culture  
Vision  
Declaration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 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을 전문적으로 적극 육성한다.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장  
오 동 오

## 문화 - 우리 시대의 휴먼 터치

벽화속의 물소리가 잠을 설치게 하니 궁궐에 그려진 벽화를 지우라 하명했다는 중국의 황제가 있었다. 이 매혹적인 일화는 감각과 느낌, 즉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일탈을 꿈꾸기도 하지만 편안한 일상이 주는 안정과 자유를 거부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모두 ‘쿠~울’하게 지내지만 억압된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탈을 추구하기도 한다. 일탈은 감성적 삶을 향한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미리 취하는 마음, 즉 설렘’ 그리고 누군가에 어딘가에 ‘간절하게 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일탈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일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성코드인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의 발휘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조성이 발휘될 수 없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그림도, 신비한 소리의 조화인 음악도, 다양한 언어조합을 통한 문학도 탄생될 수 없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뒤비노(Jean Duvignaud)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유토피아를 향해 열려 있는 삶”에 대해 역설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때를 지어 살고 있는 꿀벌이나 개미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 85세의 노인은 나흘 밤낮의 사투 끝에 뼈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온 뒤 피로를 못 이겨 잠이 들었다. 소년은 노인의 가슴에 귀를 대보고, 상처 난 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고, 문밖을 나와 내내 울었으며, 테라스에 가서 커피 한 강통을 달라며 말할 때도 울먹였다.“뜨겁게 해서, 밀크와 설탕을 듬뿍 넣어주세요.” 이것은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무엇이 살아가는 날들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진한 커피향이고, 우유와 설탕이 듬뿍 든 따뜻한 머그잔의 커피가 될 수 있을까. 아직 살아 보지 않은 삶을 향해 열려 있는 유토피아적 가능성이 진정 문화적 삶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아닐까.

인간의 평균수명이 80살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수리적 계산만으로는 갑자기 인생이 덤으로 몇 십 년 더 얻어진 듯하다. 그렇다고 늘 감성이 넘치는 이벤트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문명을 만들어 냈지만, 이제는 그 문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느라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무등문화”는 우리의 진실하고 소박한 일상을 담아낸 작은 집이다.

세상이 온통 챗GPT와 AI 이야기이지만 용을 그리고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는 ‘화룡점정(畫龍點睛)’처럼 인공지능이 채울 수 없는 창의 영역 ‘휴먼터치’는 문화와 함께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더구나 타인이 건강하게 생존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제공하는 -돌봄- 문화는 2025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가끔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배낭하나 둘러매고 낯선 답사 길에 올라 보거나 경기장에서 붉은 악마처럼 함성을 질러 보는 것, 아니면 집근처 생태 공원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어깨를 부딪치며 열심히 걷는 것- 재미때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가까이에 있는지 모른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돈을 들여 커다란 묘역을 조성하고 큰 빗돌에 이름을 새겨 넣어야 그 삶이 전해질 수 있다면 세상은 너무 슬프지 않은가? 뒷산에서 얻은 병의 약을 히말라야 설산에서 찾지 말자.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나의 삶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박하고 작아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나의 뜨거운 감성’이고 ‘이웃과의 일상’이다.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문화원이 있다.

## ■ 축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2024년도 향토문화소식지 <무등문화 제2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오동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5년 개원한 북구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향토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해 향토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지역대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북구 지역 지명의 유래와 어원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책자를 발간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구문화원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담아낸 『무등문화 제29호』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북구문화원이 지역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무등문화 제2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최 무 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최무송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제작되는 『무등문화』제2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역문화 계승과 창달의 구심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오동오 원장님을 비롯한 북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등문화』는 그동안 지역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 기록지로서 향토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록하며 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돕고있는 우리 북구의 지역문화지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료의 발간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전통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원의 활동들은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북구 출신의 한강 작가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북구민 모두가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 매우 뜻깊은 한해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한국 문학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지역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구문화원의 더 많은 역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등문화 제29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북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vol. 29 2024년

Gjbukgu Cultural Center

## 04

발간사 \_ 북구문화원장

축사 \_ 북구청장, 북구의회 회장

## 09

테마가 있는 문화풍경(화보) “2024년 북구문화원 행사”

## 17

특집 I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과 이후의 한국문학

- 가슴과 가슴을 잇는 금실 \_ 김정희

## 23

특집 II \_ 문화비평

결혼 없이 출산할 자유 \_ 한유진

## 29

특별 인터뷰

‘미래 인재’ 쑥쑥 키우는 지렛대 역할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_ 김영순

## 35

문화로 멀리뛰기

12월의 우울 \_ 성진기



## 41

북구문화사료

- 광주지역 서당의 분포와 의미 \_ 김학휘

- 북구 지명의 유래와 어원 - 중흥동 \_ 조강봉

- 우리지역 역사인물 - <충신, 의병>성과 범기봉 \_ 이종일

- 선비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_ 김중환

## 73

무드리 문예마당

- 한시 \_ 정득채 외 18명 (광주서림음사)

- 무등산 \_ 이삼문

- 무정한 자연 \_ 배병수

- 소방안전 지킴이 \_ 김경생

- 고단한 삶에 희망이... \_ 방기욱

- 김덕령의 태몽이야기 \_ 북구문화원 편집실

## 97

북구문화원 프로그램 입상작

- “제30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입상자 작품

## COVER STORY



환벽당\_상사화 / 사진작가 배상열

· 포토뉴스코리아 광주지사장

· 제8회 광주비엔날레 사진부문 참여작가

·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심사위원(사진)

· 한국사진작가협회(정회원)

### 題 號

「無等文化」는 李乙浩(전 국립광주박물관장) 博士 가 우리 고장의 母山이자 많은 역사유적을 안고 있는 「무등」 자체가 평민, 일반, 보통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진정한 문화운동의 철학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제호로 명명 하였다. 제호의 글씨는 故 法珪 金 貞 姬 先生이 썼다. 현계 선생은 국전 초대작가, 광주시전·전남도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 무드리의 어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때 광주를 ‘무진’, ‘무진주’라고도 했으나 ‘노지(奴只)’라고도 했다.” 고 되어있다. 학자들은 이 시대의 ‘노지’란 말이나 ‘무진’이란 글자는 습지를 뜻하는 ‘무물(물들)’이었을 것으로 본다. 같은 발음의 토박이 땅이름으로 전해지는 동구 계림동과 북구 중흥동에 걸쳐 있던 경양방죽 들 이름을 ‘무드리’라고 했으며 무등산 북쪽 산기슭 마을인 충효동 일대는 ‘무들 밀들’이라고 했다.

-광주 북구지 총론편



2024년

# 북구문화원 행사

## 제29차 북구문화원 정기총회 및 제8대 오동오 원장 취임식

- 일 시 : 2024년 2월 29일(목) 14:00~
- 장 소 : 북구평생학습관 2층 채움공간
- 대 상 : 북구문화원 회원
- 내 용 : 1부 정기총회, 2부 취임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회 안건으로 제1안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제2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3안 북구문화원 임원 선임의 건이 상정, 1안, 2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제3안은 오동오원장이 단일후보 등록되어 임원선임관리규정에 의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렸다. 2부 취임식에서는 제8대 오동오 원장의 취임식과 이사 8명, 감사 2명이 선임되었다.



## 제29기 문화학교 및 제24기 사회교육강좌

-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웃이 서로 함께하고 문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소통단절 해소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기 간 : 2024년 3월~12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강당,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
- 대 상 : 일반인
- 강 좌 : 풍수지리, 고전한문, 판소리·민요교실(초,중급), 고전무용, 민화, 고전한문, 사진찍기, 하모니카(초,중급), 생활영어(초,중급), 노래교실, 가야금교실 등 11과목
- 강의일정 : 과목당 주1~2회



##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통합브로셔 제작

- 북구문화원과 북구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내 문화시설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기 간 : 2024년 3월~5월
- 대상기관 : 5개 문화시설 -  
 국가 문화시설 1개소(국립광주박물관),  
 시 문화시설 4개소(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 내 용 : 중외공원 일대 문화시설 및 북구문화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통합 브로셔 제작, 배포



## 제30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 청소년들의 생각을 그림 및 글을 통해 담아보게 함으로써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함은 물론, 예술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 여가선용과 바람직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기 간 : 2024년 5월~6월
- 부 문 : ◆ 그리기-서양화, 수채화, ◆ 글쓰기-시, 산문
- 참가대상 : 초·중·고교, 미취학어린이
- 참여인원 : 707명 참여
- 심사결과 : 그리기 대상 송지윤(지산중 2-7),  
 글쓰기 대상 김범수(고려고 3-8) 외 33명 수상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지역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 북구문화원 활성화와 문화진흥사업의 핵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협의체 구축
- 기 간 : 2024년 3월~12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자료실
- 자문위원 : 문화계 전문가 5명
- 추진내용 : 반기별 간담회 개최 (정보공유 등 소통창구 구축)



## 북구의 지명유래 재조사 책자 발간

- 2022년 재조사한 북구 27개 행정동 중 24개 동의 동명 및 마을명, 산명, 하천명 등 다양한 지명의 유래를 역사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책자로 발간
- 기 간 : 2024년 3월~12월
- 조 사 자 : 조강봉/한국 지명의 어원 연구 저자
- 내 용 : -관내 동명 및 마을명, 산명, 하천명 등 다양한 지명의 유래 재조사.  
-해당 지명이 어떠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불린 지명인지 그 연유 탐구.  
-전국에 동일한 이름의 지명의 유래를 찾아 해당 지명과 비교 검토.



## 무등문화 제29호 발간

- 본 원에서 실시된 각종사업,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기고하고 우리지역의 문화 행사를 책으로 엮은 향토문화소식지 발간
- 기 간 : 2024년 3월~12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무등문화 편집실
- 내 용 : 문화원 사업 홍보 및 북구지역의 소식지



## 2024년 국가유산 보호 지원 사업

- 활동장소 : 지정국가유산  
(풍암정, 환벽당, 취가정, 충효동왕버들, 충효동 정려비각, 무진고성지)  
비지정국가유산(김덕령장군 생가터, 김덕령 부조묘)
- 활동회원 : 역사문화해설사회 동아리 회원 30명
- 기 간 : 2024년 4월~12월
- 내 용 : - 가사문화권 국가유산을 순회하면서 관리, 해설하는 모니터링 활동  
(주 1회, 월 4회)  
- 우리지역 국가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가사문화 역사지도” 제작 및 배포



## "내 고장 국가유산 지킴이날" 북구문화원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유공표창 수상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한국국가유산 지킴이 단체 연합회가 주관한 6월 22일 국가유산 지킴이날 기념식에서 북구문화원 국가유산 지킴이 강종기 회장이 활동 유공 표창을 수상하였다.



## 어르신 국어문화프로그램 “세대간 갈등 극복을 위한 화법 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풍부한 삶의 경험을 언어로 풀어내는 활동과 사회적 소통능력,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표현력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

- 기 간 : 2024년 8월 7일~8월 22일(4회)
- 장 소 : 북구 광주문학관 4층 세미나실
- 대 상 : 만 60세 이상 30명
- 내 용 :
  - 1회차 - '나'를 아는 것이 세대 간 화법의 첫걸음 외
  - 2회차 - 좋은 관계를 위한 화법은 갈등의 예방주사 외
  - 3회차 - 마음의 무거움을 줄여 주는 돌려 말하기 외
  - 4회차 - 가려운 곳 긁어주며 지혜롭게 타협하기 외



## 노인일자리 사업 “문화재 보호와 환경정화 활동”

-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 기 간 : 2024년 2월~12월(11개월)
- 장 소 : 환벽당 및 그 주변 국가유산, 풍암정과 그 주변 및 호수원효계곡 하류 일대, 무등산생태탐방원 주변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0명
- 내 용 : 국가유산 주변 환경정화 및 훼손방지



##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예술공연단지원사업”

- 음악에 재능 있는 어르신들로 공연팀을 조직하여 문화소외계층 및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방문하여 교육, 공연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창출에도 도움.
- 기 간 : 2024년 2월~12월(11개월)
- 장 소 : 북구 관내 외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40명  
(가요, 민요, 악기, 무용등 공연이 가능한 자)
- 내 용 : 흘러간 대중가요, 판소리, 민요, 우리 춤, 악기, 전통무용 등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소외된 노년층에게 제공.



## 노인일자리 사업 “소방안전지킴이”

- 북구지역 방치되어 있는 노후 소화전을 모니터링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신속 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대형화재 예방 및 지역사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
- 기 간 : 2024년 2월~11월(10개월)
- 장 소 : 북구지역 옥외 소화전 주변
- 대 상 : 만 60세 이상 30명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
- 내 용 : 광주 북구 지역 옥외 소화전 모니터링 및 보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계도 및 차량데이터 수집.



## 수현 박말순 "팔순에 꽃을 피우다"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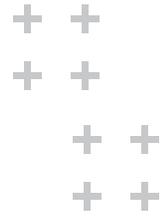
- 일 시 : 2024년 10월 21일 ~ 11월 1일
- 장 소 : 북구평생학습관 자미갤러리
- 내 용 : 북구문화원 민화반 최고령 회원인 수현 박말순 회원 작품전으로 일흔 중반에 시작해 팔순을 넘겨 개인전을 열기까지 인생의 여정이 담긴 민화작품 30여점을 전시하였다.



## 2024 광주문화원의 날 기념식-박기종 이사 우수임직원 표창

- 광주 지방문화원의 결속력 강화 및 지역문화 중심 역할로의 자부심 고취 를 통한 광주지역 문화발전 기여
- 일 시 : 2024년 11월 8일 11:00
- 장 소 : 북구 청소년 수련관
- 내 용 : 북구문화원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박기종이사가 우수 임직원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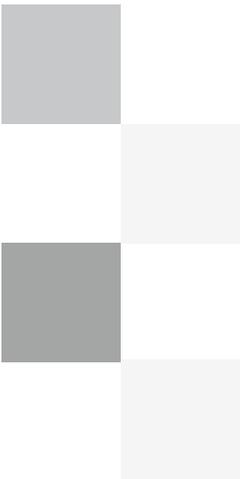




## 특집 I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과 이후의 한국문학  
- 가슴과 가슴을 잇는 금실 \_ 김정희



#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과 이후의 한국문학

## - 가슴과 가슴을 잇는 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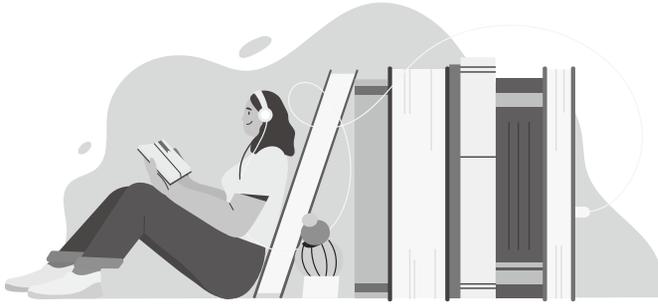
김정희  
시인, 글쓰기 강사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8살 한강은 스스로에게 묻고 답했다.

지난 7일 오후 5시(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한림원.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54)작가는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31년간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았다. 그는 1979년 4월 여덟 살 때 쓴 “천진하고 서툰” 시(詩)로 강연의 문을 열고 닫았다. 여덟 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작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것- 뛰는 가슴 속 내 심장.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 그걸 잇는 금(金)실- 빛을 내는 실. 그 후 14년이 흘러 처음으로 시를, 그 이듬해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한강은 '쓰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5년이 흐르고 3년에 걸쳐 완성한 첫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완성까지 아무리 짧아도 1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장편소설은 작가 개인적 삶의 상당한 기간들과 맞바꿈 된다. 그렇게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작가는 좋았다.



한강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와 그에 대한 상처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였고 현대사의 비극적 트라우마를 작가 특유의 시

적 문체로 풀어 나간 작품들이었다. ‘사용 인구가 채 1억이 되지 않는 한국어로 집필 활동을 해온 소설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더없이 소중한 의미이지만 지금의 기쁨을 미래의 메시지로 남기는 것은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치밀한 역사의식과 리듬감이 맞물린 한강 작가의 문장들은 운문과 산문의 경계를 오간다. 노벨상 선정 위원회는 한강 작가의 초기작인 <그대의 차가운 손>부터 작가 생애에 걸쳐 발표된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흰> 등 주요 작품을 제시하며 삶의 심연을 천착하는 한강의 시적 상상력을 강조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한강은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는 평을 남겼다.





2014년 발표한 장편 '소년이 온다'는 한강에게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다. 한강은 열두 살 때 “서가에 거꾸로 꽂힌 ‘광주 사진첩’을 우연히 발견해 읽었다”고 했다. “어렸던 나는 그 사진들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 훼손된 얼굴들은 오직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내 안에 새겨졌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같은 책에 실린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의 사진”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질문이 충돌해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다”고 했다. “오래 전에 이미 나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껴안을 수 있겠는가? 그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대면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글쓰기로만 그 의문들을 꿰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소년이 온다’는 묻는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다”며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가는 1권의 시집만을 상재하고 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피 흘리는 언어의 심장을 뜨겁게 응시하며 영혼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확인하려는 시인이 있다. 그는 침묵과 암흑의 세계로부터 빛나는 진실을 건져 올렸던 최초의 언어에 가닿고자 한다.(출판사 서평)

薄明 비껴 내리는 곳마다 / 빛나려 애쓰는 조각, 조각들 / 아아 첫 새벽, / 밤새 씻기워 이제야  
 얼어붙은 / 늘 거기 눈뜬 슬픔, / 슬픔에 바친다 내 생생한 혈관을, 고동 소리를

- 「첫 새벽」 부분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  
 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 괜찮아./ 이제 괜찮아.

- 「괜찮아」 부분

일부 인용한 한강의 시에서 보듯 그의 시 작품은 강렬한 이미지와 감각적인 문장들 너머에 자리한 어떤 내밀한 기원-성소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는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평균 연령에 못 미칠 만큼 젊다. 제2, 제3의 한강을 꿈꾸는 문학도들에게 〈희랍어 시간〉을 비롯한 그의 소설은 인간 내면의 외로움과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희망이 되는지 보여준다. - 소설을 쓰며 나는 묻고 싶었다.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를 어루만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덧없고 폭력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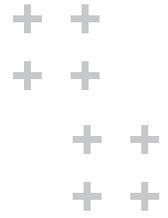
해마다 이맘때쯤 〈교수신문〉은 전국 교수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올해는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선정 발표했다. 뜻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쯤으로 새겨질 것 같다. 지금 어둠이 내려 차가운 세모의 거리 곳곳은 함부로 날뛰던 세력을 향한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전체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계엄 사태를 목도하면서 충분히 느꼈다. 철학과 인문적 사고력이 결여된 지도자의 죄의식 없는 망상이 술한 사람들을 절망케 하면서 새로운 각성을 요구한다. 지구 저편에서는 우리 한국의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던 그 영광의 밤에 권력을 향해 부나비처럼 날아오르던 이들은 다른 ‘어두운 밤’을 시민들의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바로 ‘도량발호(跳梁跋扈)’였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학적 성과 외에도 현재와 과거 역사적 사건들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에게 참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세계문학의 지도를 그린다면 그 지도 속에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 수사적 의미의 수치보다는 그동안 우리 문학의 성과 역량 수준 자체를 생각해 보자. 독자의 규모, 작품의 상업적 판매량, 대중적 독서시간, 작가의 인지도 등. 우리 문학의 대외 위상은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과 해외 출판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밀받침 되어야 한다. 문학은 상품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쫓 때와 동일한 잣대로 재단 할 수 없다. 우리 문학이 해외 독자의 독서 시간을 점유하려면 원작의 수준, 번역의 수준, 유통의 뒷받침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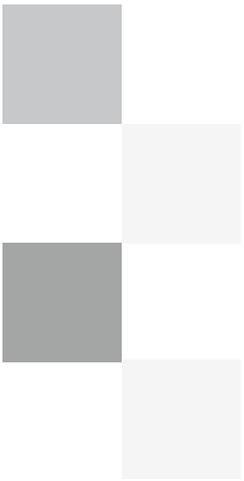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 문화를 지켜보며 환호하던 이들에게 12월7일부터 15일 까지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밤을 밝힌 '노벨 주간'의 조명은 얼마나 아름답고 벅찬 일이었을까. 스톡홀름은 위도가 북위 59도로 12월에는 오후 3시쯤 해가 진다고 한다. 한강의 영상은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펼쳐지는 '리딩 라이트(선구자들)'와 시청사 맞은편 부두 '돛 아데톤' 에 각각 등장했다. 필자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상자들의 얼굴과 업적을 담은 영상이라고 한다. 1909년 수상자 셀마 라켈 로프 부터 올해 한강 까지 노벨문학상 여성 수상자 18명의 초상을 담아 제작했다는 스테인드글라스 형태의 조명작품을 떠올리면 한강의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던 금실이 지금 우리에게 반짝이며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다.



## 특집 II \_ 문화비평



결혼 없이 출산할 자유 \_ 한유진



# 결혼 없이 출산할 자유



한유진

인문예술연구원 <춤추는별> 대표

내가 서른 살이었을 때 내 친구들 중에 미혼인 사람은 나 밖에 없었다. 그 시절만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수순으로 여겼고, 그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사회가 도덕 판단을 한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삶, 비혼 출산이 삶의 한 가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보니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그 틀이 답답하면서도, 결국은 나도 어떻게든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춰 살아온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2, 30대는 어떨까?



최근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이슈가 온라인 공론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들이 비혼 출산을 했기 때문이다. 사적 영역의 일일 뿐인데, 왜 사람들이 것처럼 갑론을박 했을까? 물론 그들이 유명인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비혼 출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한민국에서 문화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데 그 사이사이 각기 다른 도덕 판단들이 비수처럼 그들을 향하기도 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사건은, 남녀 간의 사랑은 결혼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신화, 출산은 결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신화를 동시에 깨뜨렸다. 어쩌면 우리 삶을 완고하게 규정하는 그 신화와 전통이 허무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비혼 출산이 누구에게도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고, 새로운 제도로 수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싶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거기에서 자식이 태어나 핵가족을 이루는 가족 모델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와 에바 일루즈의 연구에 의하면, 그 같은 가족 모델은 산업혁명 시기에 출현했다. 두 연구자는 결혼으로 귀결되는 이 사랑 모델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명명한다. 현대사회에 와서야 성, 사랑, 에로티시즘이 결혼과 결부된 것이다. 그 이전 시기의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과 무관하다. 전근대적인 사회에서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었다. 결혼에서는 남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측 대가족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고려되었을 뿐이다. 서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델도 크게 다르지 않다. 90대인 내 부모 세대만 해도 대개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핵가족 모델은 6, 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핵가족 모델에서는 남녀의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다. 가부장인 남편은 직장에 출근하며 온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는 가정 내에서 집안을 가꾸고 아이를 양육한다. 그런데 에바 일루즈에 의하면, 이 모델은 여성을 노예화한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의 시중을 들게 되고, 사회와 격리된 채 가정 내에서 거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며, 산업사회에서는 소비자로서만 역할 한다. 아내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나 사회참여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다.

그렇다면 출산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장류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출산은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아기는 머리가 커서 엄마의 자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을 두 번 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기와 엄마의 생명이 동시에 위험해진다. 몸을 두 번 튼 아기는 얼굴이 엄마의 뒤쪽을 향하게 되는데, 다른 유인원들처럼 엄마 스스로 아기를 받게 되면 아





기 목이 꺾이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해진다. 호모 사피엔스만이 사회적 출산을 하게 된 이유이다. 그래서 출산에 임박했을 때 다른 유인원들은 혼자 있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타인이 있어야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출산 방식으로 봤을 때 호모 사피엔스의 출산은 오래 전부터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막 태어난 아기는 너무도 연약했고 많은 양육 기간을 요구했다. 집단 양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기인 지금의 사회구조에서 가족 모델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낭만적 사랑 모델은 해체되고 있으

며, 호모 사피엔스의 출산은 가족 대신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아이의 양육 역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아기들은 한 살도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아이의 양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그 부모의 부모가 책임질 수도 없다. 아이의 양육은 점점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 세대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세대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 낭만적 사랑 모델의 해체는 여성들의 가정 내 또는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와도 관계가 깊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남녀는 직업적으로 동등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거와 같은 가정 내 분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변화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에서 먼저 일어났다. 부모 세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은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했다. 급속하게 인구가 줄던 국가들에서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거듭 실패했다. 결국 많은 정부들에서 선택한 것은, 새로운 세대의 삶의 형태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활 방식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율은 다시 올라 갔는데,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이 비혼 출산이다. 비혼 출산은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에 크게 영향 받는다. 비혼 출산을 부도덕하게 보는 인식이 사라지고 결혼 내 출산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면서,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1970년에는 7.4%였던 것이 2020년에는 41.9%까지 성장한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1999년 도입된 '시민연대협약(PACS)'이라는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이 제도는 원래 동성 간의 결합을 위해 제안되었지만, 현재는 많은 커플이 이용하고 있다). 결혼을 부담스러워 하는 연인이 간단한 절차로 기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세제 혜택, 사회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연대는 결혼의 경우처럼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한쪽이 원하여 기관에 신청하면 바로 해체된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사회적 결합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 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제 가족과 출산의 의미는 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비혼 출산율이 매우 낮은 나라이다. 이는 당연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미비함 때문이다. 세계일보(2024-08-20자)에 따르면 202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생자 비율은 41.9%이며,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2.5%였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스라엘 등은 종교적 이유로 비혼 출산율이 낮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비혼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동아일보(2024-11-18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43%가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비혼 출산율이 낮은 것은, 젊은이들은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반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혼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여전히 삶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접근이 낮고, 그만큼 자유도도 낮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삶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선택을 할 만큼의 안전망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비혼 출산의 출현은 어떤 되바라진 젊은이의 일탈적 상황이 아닌, 격동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전통적 도덕관념으로 현재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새 시대에 맞는 도덕관념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폭력적이지 않게 순화하고 길들여 제도 속에 수용해야 한다. 비혼 출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어떤 출산이건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만큼 사회보장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연유로 태어난 아이들도 다 귀하게 존중하는 사회여야 한다.

현재의 제도들은 많이 손 봐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비혼 출산 시 친모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등재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비혼 모가 친부에게 양육비 지급이나 상속권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친부가 자신의 자

녀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친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송 서류의 송달을 일부러 피하는 등 애를 먹인다. 형사 소송이 아니라서 강제 집행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비혼부의 경우에는 아예 아이와 가족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친모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서류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혼부와 아이는 가족이되, 서류상 가족이 될 수 없다.

이제 비혼 출산의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정우성씨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적인 장소에서 선언했다. 그렇다고 결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신이란 여성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여성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출산에서 정우성씨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두 사람 다 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마찬가지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떤 강제도 받지 않고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설사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어서 고통을 당할 지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있다. 밀에 의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이다.” 개인이 자기 삶을 선택할 때, 사회의 의견이나 관행, 압력, 도덕적 억압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녀노소가 더 큰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정우성씨와 문가비씨의 비혼 출산을 축하하며 이 세상에 온 아이를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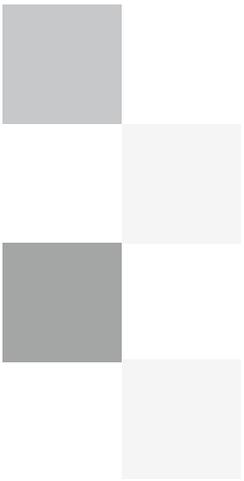




## 특별 인터뷰



‘미래 인재’ 쑥쑥 키우는 지렛대 역할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_ 김영순



# '미래 인재' 쑥쑥 키우는 지렛대 역할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글 김 영 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광주교육이 직선 4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을 쌓아 영광의 '실력광주'를 되찾겠다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만나 광주교육에 대한 창대한 로드맵을 듣는다.

-편집자주-



교육은 무엇인가, 광주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교육이 이뤄지나 등등을 떠올리며 광주시교육청으로 향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있게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평소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다. 등등의 생각을 곱씹으며 문을 열고 들어선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사람 좋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올해의 성과와 내년의 계획에 대해 꼼꼼하면서도 친절하게 풀어놓는다.

“지난 해가 광주교육이라는 텃밭에 씨를 뿌리는 시기였다면 2024년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뻗어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광주교육, 그것만이 광주의 밝은 미래를 여는 것이라는 이교육감, 그는 직선 4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서 취임 직후 밝힌 핵심정책을 찬찬히 설명한다. 그 핵심정책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세계로' '디지털 미래로' 등 4개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4년부터는 여기에다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더해 추진했다. 아이들이 잘 배우고 교사들이 잘 가르쳐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자부한다.

## 실력쌓기 통해 인재 성장의 브릿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다양한 실력쌓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교육감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서 거론한 4개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쓴 부분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었다. ▲ 365-스터디룸 ▲ ‘1고교 1대입전문디렉터’ 배치 ▲ 365일 24시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 ▲ 빛고을 꿈트리 진로진학 상담 등이 그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학부모의 호응이 커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술적 재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학생 야외버스킹’을 비롯하여 ‘光탈페’ 등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과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병원형 Wee센터’ 운영 등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랑할만한 광주교육의 프로그램들이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직·간접적 교육경비를 지원 하는 ‘꿈 드리미’ 도 없어서는 안될 사업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으뜸 사업’을 꼽는다면 지난해 출입기자단이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한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들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 우수기관을 탐방하며 글로벌 리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 12개 프로그램에 331명이 참여한데 이어 올해는 16개 프로그램에 468명이 참여했다. 또 단순히 해외 기관을 탐방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5·18플래시몹 등을 선보이며 5·18 세계화에도 특색한 역할을 했다.

## 광주교육의 성과 지대

이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같은 노력이 올해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되는 등 결실로 돌아온 것 같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3년간 330억원의 사업비를 받는 것을 비롯해 지난 2년간 재정집행을 목표달성 인센티브 110억원 등 총 66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덕분에 광주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지난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종합 최우수등급 SA 획득이다. 이어 11월에는 교육부가 주관한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 실적 정량평가'에서 18개 지표 기준을 모두 통과(PASS)해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냈다. 광주교육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우리 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시교육청을 포함해 2곳이다.

## '다시 책으로' 슬로건 삼아 독서교육

직선4기 광주교육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다시 책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독서교육이다.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광주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독서열풍'은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가운데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가 크게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열릴 '서부 독서 페스티벌'에 1천여 명의 시민이 몰리는 등 독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모든 학교에서 1교 1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만 따져도 1천180여 개에 달한다. 각 학교의 독서교육 운영비도 학교 예산의 2%까지 확대 편성했다. 지난 3월부터는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늘 독서 캠페인'을 개최한데 이어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책을 미리 읽고 서로 권장하는 '추천 책 선물 릴레이'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의문화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수능을 끝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강 작가 문학기행'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한강 작가의 고향인 장흥을 비롯해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는 벌교 일대를 찾아 문학의 숨결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도 '책으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로마대학교, 나폴리동양학대학교, 독일 괴테프랑크푸르트암마인 대학교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아몬드’, ‘파친코’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사절단 역할을 했다.

이교육감은 “앞으로도 광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한다.



## 오디션프로그램 ‘光탈페’ 인기

예향 광주의 빛깔을 찬연히 내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에도 애썼다.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운영, 중앙도서관과 동구 미로 센터에 청소년 해방구 야호 ZONE 조성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학생 야외 버스킹 ‘광탈페’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문화예술은 아이들이 감수성, 예술적 심미안을 키우는 것은 물론 심리·정서적 카타르시스, 인성교육도 가능하기에 교육에 있어 다다익선이라는 게 이교육감의 생각이다.

올해 ‘光탈페’는 학생의회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총 1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7번의 사전 학생 야외버스킹과 1차 영상 심사(24개 팀 선발), 2차 예선을 거쳐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끼와 재능을 뽐냈다. 이교육감은 현장에서 광주학생들의 끼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에 깜짝 놀랐다면서 매우 대견스러워 한다.

## 인성 위한 정서지원 아끼지 않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른 성품, 즉 ‘결국, 인성’이다. 학생들이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 일상생활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계획과 실행을 서둘렀다.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련의 하나로 인사예절을 배우곤 한다. 이 점에 착안해 초·중학교 45개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태권도 교육’을 운영했다.

지역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여자대학교 마음교육원, 광주문학관, 호남감성교육사회적협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 및 국립나주병원 등과 힘을 모아 마음챙김교육, 인성교육, 심리 상담·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내년에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 2025년 광주교육 방향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이 내년 광주교육에서 지속된다. 여기에 ‘생각을 키우는 수학·과학 교육’등이 새로 시작되어 창의적 인재 만들기의 토대를 굳건히하겠다고 이교육감은 목소리를 높인다. 수학, 과학은 기초학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기에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교육감은 “수학과 과학은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실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노릇들이 될 것”이라면서 머지 않아 ‘노벨문학상 과학상’수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기초학문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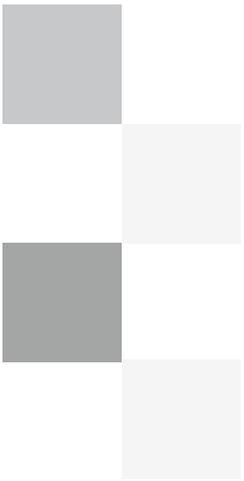
하루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이 시급하다. 이교육감은 공교육에서 생태교육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지구 생태의 안정적 유지와 인류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나눔과 연대 정신 등을 새로운 광주교육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새로운 광주교육의 방향을 밝힌다. 광주의 오월 정신, 그것이 세계 보편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교육감의 당찬 계획이 이제 실행될 일만 남았다. 어떻게든 미래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뚝뚝 뭉친 그의 진두 지휘 아래 광주의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떠맡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 문화로 멀리뛰기



12월의 우울 \_ 성진기



# 12월의 우울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철학



12월 하고도 중순, 찾아볼 책이 있어 오랜만에 J대학 캠퍼스를 찾았다. 농과대학 쪽 소로를 택해 도서관을 향해 걷는데, 나뭇잎들이 길을 덮고 있었다. 여름 내내 싱싱하게 나부끼며 꽃을 피우고 이어 열매를 키운 뒤 쇠잔한 낙엽이 되어 아무렇게나 흠길 위에 몸을 맡기는 모양새였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군소리 없이 자기 몸을 처분하는 나뭇잎들의 임종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쪽은 아니지만 부럽기도 했다.

모든 인간은 잘살려고 몸부림한다. 건강하고, 부자로, 출세가 잘 삶의 공통된 목표다. 최고의 목표는 장수인데 될 수만 있다면 영생을 꿈꾼다. 하지만 어떤 예외도 허락하지 않고, 어느 날 죽음과 조우한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자기 죽음을 감당하게 된다. 심야에 골목길에서 흥기를 든 괴한을 만났을 땐 ‘도망’이라는 대처 방법이 떠오르

지만,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기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산 사람들의 죽음 얘긴 모두 타인의 죽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또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어둡고, 종말의 공포를 동반한다. 그래서 철학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소크라테스. 몽테뉴가 언명고 있다. 공자는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삶도 말하기 어려운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까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論語)

죽음에 대한 말과 해석과 이론은 다양하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죽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필연



성으로 이해한다. 또 모든 죽음은 각자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감당한다. 아무도 날 대신해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그 기회가 단 한 번 뿐이다. 죽음은 연습할 여분이 없어서 헛되게 죽어선 안 된다. 마지막 가장 두려운 사항은 죽음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죽음의 속성이다. 이어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이란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을 일러 '죽음에의 존재'라는 말을 한다. 오늘 하루 잘 살았네 함은 오늘 하루 죽음을 향해 잘 왔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기분 나쁜 죽음을 망각하기 위해, 하이데거 용어로 '본래적 자기'를 망각하고 일탈하려는 사람을 가리켜 '일상인'이라 칭하고 배격한다. 일상인은 자기 주장이나 신념 없이 유행을 쫓고, 무의미한 헛소리를 좋아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놀이에 몰두하는 경향을 가진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듯이 인간의 죽음은 보통 늙어서, 즉 나이 들고 그 뒤에 죽는다. 인간은 태어난 뒤 바로 죽음으로 직행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삶을 경과한 후에 죽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죽음을 걱정만 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다. 실은 대비해야 한다.



나이 들은 부지 없이 늙어 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시간의 흐름이다.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줄기와 가지와 잎들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늙어 가야 꽃이 피고 이어서 더 여름날 피약별을 버티는 시간을 견딘 다음 열매를 만든다. 이런 시간들을 늙어 감이라고 탓해선 안 된다. 인간도 아이에서 좀 늙어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어 사람 노릇을 해낼 수 있다. 늙으면 지혜가 충만한 노인이요 어른이 된다. 이런 인간의 나이 들은, 다음 단계 죽음을 위한 지혜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생리적 호르몬의 감소는 지혜의 호르몬 증대로 대체된다.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가 보겠다. 하이데거는 삶과 죽음을 아주 다른, 어찌 보면 적대 관계 같으나 그러지 않다고 말한다. 죽음은 기껏해야 삶의 한 요소요 부분이다. 다만 시간적으로 삶의 끝 부분에 일어나는 삶일 뿐이다. 멋진 말이



떠오른다. 죽음은 삶의 절정을 장식하는 현상이다. 인간이 평생을 디자인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설계하는 일이다. 살면서 죽음을 사유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절정을 꿈꾸는 일이다.

따라서 언젠가 닥쳐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함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바로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 우리는 죽음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관건이 된다. 내가 나의 죽음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직시할 용기가 생기고 그 수용 태도도 담담해질 수 있다. 유호종 교수는 죽음을 떠남과 없어짐의 관점에서 논한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개하려는 시도를 한다.

사람은 사는 대로 죽는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죽음의 양상이나 의미가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다르게 어떤 죽음을 보며 인간의 삶이 어찌야 하는지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몰두했는데 현대 사회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고심한다. 죽을 일이 큰 짐이 된 것이다.

조선의 성리학자 퇴계(退溪) 선생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매화(梅花)에 물 주어라” 이 말을 해석하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살아 있는 시인 정호승의 ‘매화’를 일독하면 퇴계의 마음이 전해질 듯 하다.



매 화

정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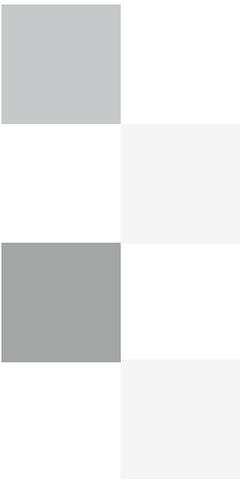
퇴계 선생이 임종하신 방 한구석에  
매화분 하나 놓여 있다.  
매화분에 물 주거라  
퇴계 선생 돌아 가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소중히 받들기 위해  
매화분에 매화는 피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통장의 돈 찾아라  
한마디 남기고 죽을까봐 두려워라  
오늘도 낙동가 건너 지구에는  
한창 매화꽃이 피고 있다  
새들은 꽃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은 나를 보고  
죽더라도 겨울 흰 눈 속에 핀  
매화 향기에 가서 죽으라고 자꾸 속삭이는데  
도산서원 매화나무 가지에 많은 새들은  
어디에 가서 죽는가.





## 복구문화사료

- 
- 광주지역 서당의 분포와 의미 \_ 김학희
  - 복구 지명의 유래와 어원-중흥동 \_ 조강봉
  - 우리지역 역사인물 \_ 이종일
  - 선비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_ 김종환



# 광주지역 서당의 분포와 의미



김 학 휘

전 광주광역시문화재전문위원

## 1. 서당의 생성과 분포

조선시대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으며 총장은 대사성이었다. 중등교육기관은 사학(四學), 향교, 서원이며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었다. 중등교육기관부터는 종교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함께 행사하였다. 교육기관의 기능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종교적 기능인 제사 기능이 우선시 되었으나 서당만은 교육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였으며 현재 서당의 위치나 존재유무를 가장 잘 알려주는 자료는 마을의 옛 지명에서 '서당골'이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서 '민중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서당의 증가' 현상이다. 서당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서당이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 동족마을이 들어서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지 사족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 마을에 서당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반 마을의 서당은 18세기 들어 동족마을이 형성되어가면서 크게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평민층을 중심으로 한 동족마을도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 마을에도 서당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서당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서당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 「예전(禮典)」에서 “군현(郡縣)에서는 보통 1향(鄉)이 수십 개의 촌락을 거느리고 있는데 대략 4~5개의 촌락마다 반드시 하나의 서재(書齋)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19세기

초에는 4~5개 마을에 하나 정도의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전라남도에는 모두 1,412개의 서당이 있었고 인구비례로 보면 1,402명당 1개의 서당이 있었다. 무안군의 경우 21개 면에 서당이 126개가 있었으며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들은 남자 1,918명, 여자 5명이었다. 1개 면에 평균 6개 정도의 서당이 있었던 셈이다. 1개 면에 대개 10개 안팎의 리가 있었기 때문에 2개 리 정도에 하나의 서당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순우 교수의 저서 『서당의 사회사』를 보면, 조선후기~한말 서당의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899년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는 32개의 자연마을이 있었고 호수는 687호였는데 서당이 있는 마을은 6개 마을이었다고 한다. 이는 5개 마을에 하나의 서당이 있었던 셈이다. 또 『추안급국안』을 보면 18세기 중반에 유랑지식인 박천우라는 이가 전라도 위도라는 섬에 들어가 서당 훈장을 하다가 도초도로 옮겼는데 그곳에도 서당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오형묵이 쓴 『지도군총쇄록』을 보면 1895년 지도군(지금의 신안군)의 군수가 된 오형묵이 순시 차 여러 섬을 방문했을 때 방문한 거의 모든 섬에서 서당 훈장을 만났고 학동이 많게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는 섬지방에도 서당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당의 수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이후 더 늘어났다. 신식교육을 담당할 학교는 아직 들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열이 크게 높아지자 신학문을 가르치는 ‘개량서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였다. 서당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16년으로 전국에 25,486개의 서당이 있었으며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259,531명에 달했다. 당시 서당이 가장 많았던 곳은 황해도로서 3,274개의 서당이 있었다. 다음이 경기도로 2,444개의 서당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에도막부 시기에 조선의 서당과 비슷한 데라코야(寺子屋)가 세워져 서민층의 자제들을 가르쳤다. 특히 19세기에 크게 늘어나 막부말기에는 전국적으로 16,650개의 데라코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 인쇄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연구도 있다.

서당은 농촌이나 어촌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양과 같은 도회지에도 양반층을 위한 서당, 상인층을 위한 서당, 심지어 노비층을 위한 서당까지 있었다. 한양의 서당에는 학동이 많아서 50명이 넘기도 했고, 그래서 2부제 수업을 하는 곳도 있었



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서당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숫자상으로는 양반층보다 평민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서당이 더 많았다. 이는 평민층도 서당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이며 평민층 가운데 글을 아는 평민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 서당 수의 증가는 민중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 2. 서당의 운영과 교육내용

서당의 운영은 양반층의 경우에는 대개 ‘학전(學田)’이라 부르는 논밭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의 재원으로 삼았다. 하지만 평민층의 경우 ‘학전’까지는 마련하기 어려워 ‘학계(學契)’를 만들어 재원을 조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서당이 있었던 마을의 고문서 더미에서는 ‘학계’나 ‘계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서당에서 공부한 이들 가운데 우수한 이들은 사마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마시에 낙방을 하거나 아예 응시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런 경우 이들은 고향에서 서당 훈장이 되거나 유랑지식인이 되어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서당 훈장으로 생업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사교육의 시초인 서당의 교육대상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아동부터 마흔 전후의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서당교육을 받았다. 서당의 교육 내용은 초보적 문자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문자 교육을 비롯한 과거(科擧)교육, 심오한 문학과 철학의 강론까지 교육하였다. 서당의 다른 명칭은 글방, 사숙(私塾), 서재(書齋), 정사(精舍), 서숙(書塾), 학당(學堂), 강당(講堂), 강사(講舍), 가숙(家塾)으로도 불렸다.

서당의 훈장은 대체로 몰락한 양반이나 관직 진출이 막힌 불우한 지식인들이 많았다. 훈장의 평가는 강미(講米)의 다소로 실력이 평가되었다. 훈장 가운데 거벽(巨擘)이라고 부르는 훈장은 주로 과문(科文)을 대신 작성해 주는 사람이었으며 인기 강사를 숙사(塾師)라고 하였다.

서당에서는 『천자문』, 『동몽선습』, 『사략』, 『통감절요』, 『사서』의 순으로 학도들을 가르쳤다. 글자를 익히는 『천자문』, 『동몽선습』 단계의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들 책 외에도 『유합(類合)』, 『훈몽자회(訓蒙字會)』 등 유사한 교재가 많았고, 다음 단계로는 『격몽요결』, 『명심보감』 등 한문 초심자를 위한 교재들이 많았다. 서당의 수가 늘어가면서, 조선의 인쇄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당에서 교육받은 학동들의 평가 방법은 강(講)으로 매일 실시하였다. 배운 내용을 암송하여

합격해야 다음 진도를 나간다. 학습 내용은 개인 능력별로 배당된다. 서당교육의 특징은 개별학습, 능력별 학습, 자율학습, 반복학습이었다. 서당의 강의 평가 시기는 10일, 15일, 한 달 등 날짜를 정해 놓고 실시하였다. 평가 단계는 순(純), 통(通), 약(略), 조(租), 불통(不通)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였으며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서당교육을 마치면 지역에 하나 설치된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한 권의 책이 끝나면 괘책예(掛冊禮) 또는 책세식(冊洗式)이라고 하여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송하거나 훈장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잔치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서당에서 사용하는 회초리는 벌 받을 당사자가 해오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율성을 유도하는 교육이었다.

당시 서당교육은 꼭 과거 응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양반층이나 평민층이나 모두 삼강오륜을 뼈대로 하는 유학(儒學)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최소한의 인륜을 깨쳐 지식과 인성 함양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 서당의 지역분포 의미

광주광역시에서 서당이 있었던 곳은 다음 <표> 와 같다.

일련	행정구역	법정동	명칭	비고
1	광산구	본덕동	서당골	
2	"	남산동	서당산	
3	"	덕림동	서당골	
4	"	동호동	서당골	
5	"	선 동	서당골	
6	"	지산동	서당골	
7	"	도촌동	서당등	
8	"	도덕동	서당골	
9	"	신 동	서당골	
10	"	도산동	서당밭	
11	"	선암동	서당나무갓	
12	"	우산동	서당골	
13	"	운수동	서당골	
14	"	박호동	서당골	
15	"	오산동	서당터	
16	"	임곡동	서당골	
17	"	연산동	서당골	
18	"	용곡동	서당골	
19	"	산정동	서당골	

20	"	오산동	서당모퉁이	
21	"	장덕동	서당골	
22	"	장수동	서당골	
23	"	하남동	서당골	
24	"	흑석동	서당골	
25	동구	용산동	서당골	
26	"	지산동	서당골	
27	북구	금곡동	서당골	
28	"	본촌동	서당재	
29	"	오치동	서당산	
30	"	운암동	서당골	
31	서구	서 동	서당골	
32	"	용두동	서당골	구(舊) 광산구
33	남구	대지동	서당골	"
34	"	양과동	서당골	"
35	"	이장동	서당앞	"
36	"	칠석동	서당시암	"
37	"	구소동	서당골	"

※ 출처: 「한국지명총람」 13(전남편) 1 한글학회. 1982.

위 <표>는 1980년대에 조사하여「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된 광주광역시 지명에 나타난 서당 관련 지명을 조사 정리한 자료인데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모두 37곳의 서당 지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서당 지명이 있는 곳에는 서당이 있었다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광주광역시 5개 구 서당 37곳 가운데 광산구에 24곳으로 전체 서당 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옛 광산구 지역이었던 남·서구 대촌, 서창의 서당 6곳을 포함하면 30곳으로 81%의 서당이 광산지역에 집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산지역은 16세기 황룡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 출신이자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20여 명에 가까운 조선 선비들이 사화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낙향한 결과 각 지역에 누정을 짓고 세거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광산지역을 본향으로 한 14개 토반 성씨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동족마을의 형성과 집성촌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광산지역에 서당이 집중된 것도 위와 같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당교육을 받은 민중들의 증가 결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항일독립운동, 한말의병 활동, 광주학생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민들이 지역의 면회(面會)나 리회(里會)를 주도하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 북구 지명의 유래와 어원

## - 중흥동



조강봉

한국지명의 어원 연구 저자

### 1. 중흥동(中興洞)

#### 1) 연혁<sup>1)</sup>

- ① 중촌(中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경양리(景陽里)<sup>2)</sup>〉
- ②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③ 태봉리(胎峯里), 누항리(陋巷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
- ④ 서양면(瑞陽面)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 기례방면의 누항리(陋巷里) 일부와 태봉리(胎峯里)를 합한 지역.〈『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 ⑤ 중흥동(中興洞) 【동】 광주시-북구-본래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롱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의 각 일부와 기례방면의 태봉리, 누암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중

1) 광주 북구 연혁은 『호구총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한국지명총람』 자료와 향토문화진흥원 편 『광주동연혁지(光州洞沿革誌)』, 광주광역시, 199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광주동연혁지(光州洞沿革誌)』는 위의 자료 이외의 개정사항이 1990년까지 수록되었기에 이를 활용하였다. 1990년도 이후의 연혁은 광주광역시 북구청홈페이지(<https://bukgu.gwangju.kr/>)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경양리(景陽里)는 후에 서양면(瑞陽面)이 되었다가 후에 서방면(瑞坊面)이 되었다.

흥리라 해서 서방면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광주시에 편입되고, 1957년 동제 실시에 따라 효죽동의 관할이 되었다가, 1979년 시 조례 제844호에 의하여 중흥동을 갈라 중흥 1동, 2동회로 함.<『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 ⑥ 1935. 10. 1. 총독부령에 의거 광주읍(光州邑)이 광주부(光州府)로 승격되며, 광주군(光州郡)은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 ⑦ 1945. 8. 15. 대한민국 국권 회복
- ⑧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에 의거 지방자체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부(光州府)가 광주시(光州市)가 되었다.
- ⑨ 1955. 7. 1. 법률 제361호(1955. 6. 29.) 지방자치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 확장하기 위하여 광산군(光山郡) 서방면(11리), 효지면(15리), 극락면(전지역), 석곡면(5리)을 광주시에 편입하고 풍향, 망월, 유림, 진월의 4개 출장소를 두었다. 풍향출장소는 옛 서방면 지역인 풍향동, 중흥동, 우산동, 두암동, 각화동,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매곡동, 용봉동, 신안동을 관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풍향출장소 관할 중흥동(中興洞)이 되었다.
- ⑩ 1957. 12. 2. 광주시 122개 동을 51개 동으로 축소하면서 본청직할과 4개 출장소를 두면서 법정동인 우산동(牛山洞), 풍향동(豐鄉洞), 중흥동(中興洞)은 본청직할의 효죽동(孝竹洞) 관할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 ⑪ 1961. 3. 10. 광주시에 8개 출장소(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산, 대촌, 서창)제를 실시하면서 중흥동(中興洞)은 북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광주시사:1980)
- ⑫ 1966. 1. 8. 광주시 조례 제201호에 의거 효죽동(孝竹洞) 관할에서 중흥동(中興洞)이 분리 독립하였다.
  - \* 1970. 1. 1. 효죽동(孝竹洞) 관할에서 풍향동이 분리 독립.
  - \* 1970. 6. 29. 효죽동(孝竹洞)이 우산동(牛山洞)으로 개칭함.<sup>3)</sup>
- ⑬ 1973. 7. 1. 광주시에 구제(區制)가 실시됨.(대통령령 제6544호)
  - \* 동구(東區) : 중부, 동부, 북부출장소 관할 동.
  - \* 서구(西區) : 남부, 서부, 지산(芝山)출장소 관할 동.
- ⑭ 1979. 1. 1. 광주시 조례 제844호에 의거 중흥동이 중흥1동과 중흥2동으로 분동 되었다.
- ⑮ 1980. 4. 1. 대통령령 제9630호(1979. 9. 26)에 의거 광주시 복구(北區) 설치.
  - \* 동구(東區) 관할의 중흥 1·2동과 우산동, 풍향1·2동, 문화동, 서산동, 석곡출장소 관할이던

3) 『광주동연혁지』, 향토문화진흥원편, 광주직할시. 1991. 158쪽.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의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西區) 관할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을 통합하여 북구(北區)를 두었다. 이때 북구 중흥1, 2동이 되었다.

\* 광주시 조례 제348호에 의거 석곡출장소, 지산출장소는 폐지.



카카오지도(2024. 5) 중흥동 지역

- ⑫ 1982. 9. 1. 광주시 조례 제1147호에 의거 중흥2동을 중흥2동과 중흥3동으로 분동하였다.
- ⑬ 1986. 11. 1. 법률 제3808호에 의거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다.
- ⑭ 1991. 4. 15. 북구의회 개원
- ⑮ 1995. 1. 1.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 2, 3동이 되었다.

## 2) 지명의 유래 및 어원

### ■ 모롱리(毛弄里)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에 모롱리(毛弄里)가 있다.

- ① 모롱리(毛弄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모롱리(毛弄里)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모른걸.
- ③ 모른걸 [모롱골, 모롱리]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간넛걸 동쪽에 있는 마을.

위 모롱리(毛弄里)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조에 기록된 지명인데 이칭이 ‘모른걸’인데 “간넛걸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했다. ‘모른걸’은 ‘모르+걸’로 분석된다.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에서 ‘모르다’를 찾아보면 ‘알지 못하다’의 뜻과 ‘마르다’의 전라·경남방언이라 했다, 그리고 ‘걸’은 경상도 방언으로 ‘개울’이라 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모른걸’을 살펴보면

- ④ 모른들【들】광주시-남구-구소동- 고랫들 서쪽에 있는 들.
- ⑤ 모른말【모랫말】【마을】 경기-파주군-적성면-무건리- 무건이 남쪽, 모통이 마을.

④의 ‘모른들’은 그 유래를 알 수 없고, ⑤의 ‘모른말’은 ‘모랫말’, ‘모통이에 있던 마을’이라 하였다.

- ⑥ 모른방천【들】 전남-광양군-진월면-마룡리- 모른방천 밑에 있는 들.

- ⑦ 모른방천【뚝】 전남-광양군-진월면-진정리- 진목 동쪽에 있는 뚝. 비가 많이 와야 물이 흐르고 여늬 때는 몰라(말라) 있음.
- ⑧ 모른방천2【뚝】 전남-광양군-진월면-마룡리- 큰방천 서쪽에 있는 뚝. 큰비가 와야 물이 흐르고, 여늬 때는 물이 흐르지 않아 몰라(말라) 있음.
- ⑨ 모른봇자리【들】경남-고성군-상리면-오산리- 오산남쪽에 있는 들.
- ⑩ 모른소【소】제주-북제주군-애월읍-하귀출장소-광령리- 무수넛다리 남쪽에 있는 소. 큰비가 와도 사흘만 되면 마름.

그러나 ⑥-⑩의 ‘모른방천’, ‘모른소’의 ‘모른’은 ‘마르다(乾)의 방언 ‘모르다’에 연유한 지명인 듯하다. 이를 보면 이곳 광주 북구 중흥동 모룡리(毛弄里)는 이칭이 ‘모른걸’이라 했으며, ‘모르다’는 ‘마르다(乾)의 전라-경남의 방언이고, ‘걸’은 개울이라 했으니 이는 지대가 모래가 많아 비가 오면 바로 물이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늘 마른 상태의 개울이었기에 붙인 지명일 것으로 여겨진다.

## ■ 중촌(中村)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에 중촌(中村) 마을이 있다.

- ① 중촌(中村).〈『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경양리(景陽里)
- ② 중가리(中街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③ 간뎛걸 [간뎛골]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중흥동 복판에 있는 마을.

위 중촌(中村) 마을은 1789년 『호구총수』 전라도 광주군 동면 경양리(景陽里)조에 중촌(中村)이라 했다. 그런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은 대가리(大街里), 중가리(中街里), 모룡리(毛弄里), 효죽리(孝竹里), 관전리(官前里), 병문리(屏門里), 치동리(峙洞里), 이동리(泥洞里)를 관할하여 중촌(中村)은 볼 수 없고 비슷한 지명으로 중가리(中街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중흥동조를 보면 모룡리(毛弄里), 중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孝竹里)를 관할 한다 했고, 서방면 우산동(牛山洞)조를 보면 관전리(官前里), 치동리(峙洞里), 효죽리(孝竹里), 대가리(大街里), 병문리(屏門里)를 관할 한다 했다. 여기에서 병문리(屏門里), 대가리(大街里), 효죽리

(孝竹里), 관전리(官前里)는 중흥동과 우산동 두 지역에 각 일부가 편제되었으나 모롱리(毛弄里), 증가리(中街里), 이동리(泥洞里)는 중흥동에만 편제되었고, 관전리(官前里), 치동리(峙洞里) 우산동에만 편제되었다.



『국정보매』(1910년대) 중흥리

또한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중흥동조를 보면 중촌(中村)은 볼 수 없고 ‘간땃걸’을 볼 수 있는데 ③에서 ‘간땃걸’은 ‘중흥동 복판에 있는 마을’이라 했고, ④에서 ‘간땃걸’은 ‘한거리 서남쪽 마을로 가운데가 됨’이라 했음을 볼 때 ‘간땃걸’은 중촌(中村)의 고유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간땃걸’의 ‘걸’은 ‘거리’의 준말인 듯하다.

또한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복구 우산동조를 보면

- ④ 간땃걸 【마을】광주시-복구-우산동- 한거리 서남쪽 마을. 가운데가 됨.
- ⑤ 한거리 [大街里] 【마을】 광주시-복구-우산동- 우산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큰 길옆이 됨.
- ⑥ 솟땃걸 [孝竹里] 【마을】 광주시-복구-우산동- 한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 솟대가 섰었음.
- ⑦ 괴약걸 [고야걸. 관앞걸. 官前里] 【마을】 광주시-복구-우산동- 잿모실 북쪽에 있는 마을. 경양역관이 있었음.

을 볼 수 있는데, ④에서 ‘간땃걸’은 ‘한거리 서남쪽 마을로 가운데가 됨’이라 했고 ⑤에서 ‘한거리’는 대거리(大街里)이며 ‘우산동에서 으뜸 마을로 큰길 옆이 됨’이라 했다. 그리고 ⑥에서 ‘솟땃걸’은 효죽동(孝竹里)인데 ‘한거리 남쪽에 솟대가 섰었음’이라는 했고, ‘괴약걸’은 관전리(官前里)인데 잿모실 북쪽에 있는 마을로 경양역관이 있었다 했다.



국토정보매(25k, 1970년대) 중흥동, 우산동

그리고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25k 1970년대)을 보면 중흥동은 효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일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동신중·고등학교에서 담양으로 통하는 큰길을 건너면 우산동 지역이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서방사거리 방면과 효동초등학교 쪽의 경양(景陽) 마을 인근에 대가리(大街里), 중가리(中街里), 중촌(中村)이 있었던 듯하다.

그렇다면 중가리(中街里)는 어떤 연유로 불린 지명일까?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중촌(中村)을 살펴보면

- ⑧ 중촌(中村) 【마을】 충남-서산군-인지면-야당리- → 가운데말.
- ⑨ 중촌(中村) 【마을】 경남-충무시-도남동- 상촌과 하촌 사이에 있는 마을.
- ⑩ 중촌(中村) 【마을】 전남-나주군-봉황면-유곡리-박실 가운데쪽의 마을.
- ⑪ 중촌(中村) 【마을】 경기-가평군-가평읍-읍내리- 읍내리의 중앙이 됨.

⑧-⑪의 중촌(中村)은 해당 지역의 한 가운데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흥동 중촌(中村)은 이 지역의 한 가운데에 형성된 마을이었기에 불렸을 것이며 후에 중흥동(中興洞)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 ■ 이동(泥洞)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조에 이동(泥洞) 마을이 있다.

- ① 이동리(泥洞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진고살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간땃길 북쪽에 있는 마을. 긴 고살 옆이 됨.

위 이동(泥洞) 마을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조에 이동리(泥洞里)라 했으며,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광주군 서방면 중흥동조의 이동리(泥洞里)가 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를 보면 이동리(泥洞里)는 볼 수 없으나, 그 대신 북구 중흥동조에 ‘진고살’이라는 마을을 볼 수 있는데 “긴 고살 옆이 됨.”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동(泥洞)의 ‘泥’는 훈이 ‘진흙’, ‘진창’을 뜻하므로 마을 주변의 흙이 질기 때문에 불린 지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만일 이동(泥洞)이 “긴 고샅”에 연유한 지명이라면 장동(長洞)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필자는 어렸을 때 마을의 골목길이 무척이나 질어서 흙이 고무신에 달라붙어 한 발 한 발을 떼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를 보면 이곳 이동리(泥洞里)는 ‘泥’는 흙이 ‘진흙’이므로 고유어 지명으로는 ‘진고샅’으로 불렸을 것이지만 ‘진’을 ‘長’이 아닌 ‘泥’으로 표기한 것은 ‘긴 고샅’이 아님을 알려 주는 증거라 생각한다.

따라서 ①의 광주 북구 중흥동의 이동리(泥洞里)는 고유어 지명이 ‘진고샅’이라 했음을 고려할 때 ‘진흙 고샅’에서 연유한 지명으로 여겨지며, 그러기에 이동(泥洞)은 ‘진흙고샅’을 훈차 표기한 지명으로 여긴다.

## ▣ 병문리(屏門里)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중흥동조에 병문리(屏門里)가 있다.

- ① 병문리(屏門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
- ② 병문리(屏門里)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 병문안.
- ③ 병문안 [병문리]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시냇굴 북쪽에 있는 마을.
- ④ 병문리(屏門里)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 → 병문안.

위 병문리(屏門里)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서양면(瑞陽面)에 속한 마을인데, 『한국지명총람』 광주시 북구 중흥동조에 병문리(屏門里)는 이칭이 ‘병문안’이라 했다.

그렇다면 병문(屏門)은 어떤 의미에서 불렸을까?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병문(屏門)의 풀이를 보면

- \* 병문1(屏門) : 골목 어귀의 길가
- \* 병문친구(屏門親舊) : 정해진 일자리 없이 골목 어귀의 길가에 모여 있다가 닥치는 대로 뜬별이를 하는 사람
- \* 병문파수(屏門把守) : 예전에, 임금이 나들이할 때 길 어귀를 지키던 군사를 이르던 말

이라 하여 “골목 어귀의 길가”라 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2023. 3. 21. 접속](https://100.daum.net/encyclopedia/2023.3.21))에서 병문(屏門)으로 불리는 지명을 검색해 보면 『서울지명사전』에 등재된 동명(洞名)과 도로명을 볼 수 있다.

- \* 종현병문계(鐘懸屏門契) : 조선시대 중부 징청방에 있던 계로서, 계 이름은 종현 골목 어귀의 길가에 있는 마을인 데서 유래되었다. 영조 때는 중부 수진방에 속하였으나, 고종 초에는 징청방에 있었고,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없어졌다.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종로1가의 일부에 해당된다. 유형 : 동명
- \* 이간병문계(二間屏門契) : 조선시대 남부 회현방에 있던 계로서, 영조 때는 호현방에 속하였으나, 고종 초에는 회현방이었고,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없어졌다. 유형 : 동명
- \* 수동병문(壽洞屏門) : 조선시대 시전거리의 일부로 종로1가에서 청진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한다. 유형 : 도로명
- \* 상피마병문(上避馬屏門) : 상피마병문은 조선시대 운종가 시전 뒷골목인 피마골의 위쪽(웃피마동)에 있던 골목어귀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종로구 장사동 우너더리로 통하는 골목으로 지금의 돈화문길 연변의 장사동 20번지 일대의 피마골 어귀를 말한다. 유형 : 도로명

하지만 광주 지역에는 『광주북구지리지』(1997:387)에 중흥동 13번지와 우산동 271번지 사이에 병문(屏門)을 볼 수 있는데, 병문(屏門)의 사진과 함께 설치시기는 1600년 말에 병문리(屏門里)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고 규모는 폭 3m, 규모는 3.5m 이상의 터로 인심이 순후하고 화재나 재난, 질병이 없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이곳 산자락에 병문(일명 盜大門)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재난을 막기 위하여 설치했다고 했다.<sup>4)</sup>

병문(屏門)의 ‘屏’의 훈은 장삼식 편 『대한한대사전』에 ‘병풍’, ‘덮다’, ‘앞가림’, ‘울타리’, ‘물리치다’ 등이라 했다. 이를 보면 병문(屏門)은 마을에 화재나 재난, 질병, 도둑이 없는 마을 바라는 의미에서 설치한 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병문(屏門)을 살펴보면

- ⑤ 병문천(屏門川, 兵門川) 【내】 제주도-제주시-산천- → 병문내.

4)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정보실, 『광주북구지리지』, 광주광역시 북구청, 1997, 387쪽

- ⑥ 병문(兵門) 【들】 제주도-북제주군-조천면-조천리- 조천리와 함덕리에 걸쳐 있는 들. 조천관 진영의 병문이 있었음.
- ⑦ 병문(兵門) 【들】 제주도-북제주군-조천면-함덕출장소-함덕리- 조천리의 병문.

⑤-⑦의 제주도의 병문천(屏門川)과 병문(兵門)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①의 광주 북구 중흥동의 병문(屏門)은 중가리(中街里), 대가리(大街里)와 같이 ‘골목 어귀의 길가’에 마을에 도둑이나 재난 등을 막음과 동시에 마을의 인심이 순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세웠던 병문(屏門)에서 유래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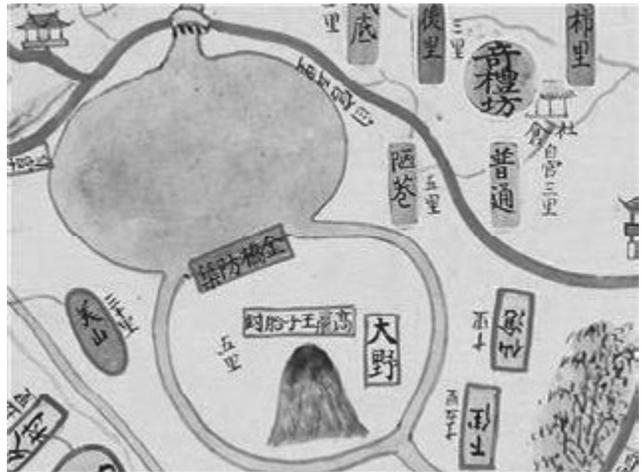
## ■ 태봉(胎峯)

『한국지명총람』 광주군 중흥동조에 태봉(胎峯) 마을이 있다.

- ① 태봉리(胎峯里).〈『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
- ② 태봉1(太峯, 胎峯) 【마을】 광주시-북구-중흥동-태봉 밑에 있는 마을.
- ③ 태봉2(太峯, 胎峯) 【산】 광주시-북구-중흥동→ 태봉산.
- ④ 태봉동(胎峯洞) 【동】 광주시-북구- 1957년 11월 6일 동제 실시에 따라 신안동과 용봉동을 합하여 신흥동이라 하다가, 1973년 7월 1일 동제 변경으로 태봉로회로 고침.
- ⑤ 태봉산(胎峰山) [태봉] 【산】광주시-북구-중흥동-태봉 남쪽에 있던 산. 높이 52m. 명당이 있다 하여 암장을 많이 하며, 암장을 하면 날이 가문다는 풍수설에서 1929년 7월 하순, 한 발로 인하여 묘를 찾다가 지른 4척, 높이 1.9척의 석분의 발견으로 조선 인조 때의 왕자 태를 장사지낸 곳임을 알았음. 명문에 천계 5년이라 했으니 인조 3년(1625)에 묻은 것임.

위 태봉(胎峯) 마을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광주군 기례방면(奇禮坊面)조에 태봉리(胎峯里)라 했고, ②의 태봉1(太峯, 胎峯) 마을은 ③, ⑤의 태봉산(胎峰山)에 연유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④의 태봉동(胎峯洞)은 1957년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신안동과 용봉동을 합하여 신흥동으로 불리다가, 1973년 태봉동으로 고쳐 불렸다. 현재 태봉(胎峯)은 광주역에서 요한병원 쪽으로 가는 길을 ‘태봉로’라 지정되어 있고, 북부경찰서와 비엔날레 사이에 태봉초등학교라 하여 그 잔영이 남아 있다.

태봉산(胎峰山)은 본래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아아파트(옛 살레시오고등학교 자리)에서 광주역 일부 지역에 있었던 산명이다. 태봉산(胎峰山)은 규장각소장 『1872년 지방지도』(도엽:광주)에 그림과 함께 “高麗王子胎封”으로 기록되어 있다.<sup>5)</sup> 태봉(胎峯) 마을은 태봉산 남쪽 기슭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1967년 광주시청과 시청앞 부근에 있었던 경양방죽을 메우면서 태봉산(胎峰山)을



『1872년 지방지도』(도엽:광주) 태봉산(胎峯山)

허물어 그 흙으로 메웠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산은 높이 52m로 예로부터 명당이 있다 하여 암장을 많이 했는데 1928년 7월 극심한 한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암장을 파헤치면 비가 온다는 속설에 따라 이 산을 파헤치던 중 높이 62cm, 직경 130cm의 석제 태실(胎室)을 발견했다. 태실 안에는 백자 태항아리와 금박 납석제의 다갈색 지석(誌石)을 수습하였으며 지석에는 “皇明天啓四年九月初三日辰時誕生王男大君阿只氏胎天啓五年三月二十五日藏”이라는 기록이 있어 왕남아기씨는 1624년(조선 인조) 9월 3일생이며 이듬해 3월에 장태(藏胎)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명은 태봉(胎封, 泰封, 台峰, 太峰)으로 표기되기도 한다.<sup>6)</sup>

『한국지명총람』에서 전국에서 불리는 태봉을 보면 대개 임금이나 왕자의 태를 묻은 데서 불린 지명으로 나타난다.

- ⑥ 태봉【산】경북-금릉군-대항면-운수동- 조선 정종의 태를 묻었다 함.
- ⑦ 태봉2(胎峯)【산】충북-증원군-엄정면-괴동리- 이조 경종의 태를 봉하였음.
- ⑧ 태봉(胎峯)【태봉산】충북-청원군-산천- 이조 영조의 태를 묻었다가, 1930년경에 옮겨감.
- ⑨ 태봉【산】경기도-성남시-증원구-대장동- 인조의 태를 모셨다 함.
- ⑩ 태봉(胎峯)【산】대전시-유성구-용산동- 이조 태종의 태를 묻었다 함.
- ⑪ 태봉2(胎封)【산】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 태봉(마을) 뒤에 중종의 태를 봉하였음.

5) 서울대학교 규장각 발행 『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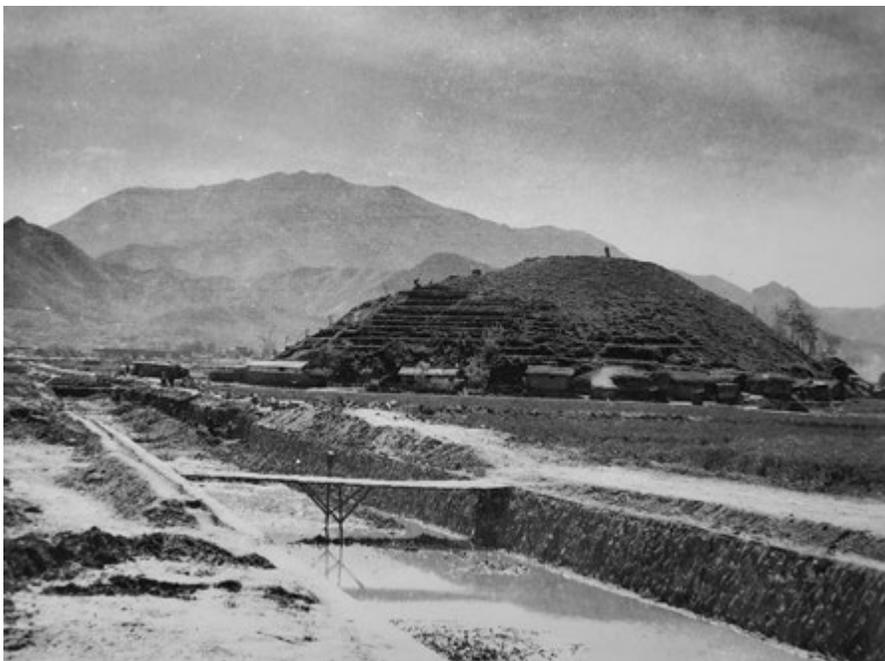
6) 박선홍, 『광주1백년』②, 금호문화, 1994.

⑫ 태봉(胎峯)[태봉산] 【산】 충남-예산군-신양면-황계리- 이조 현종의 태를 묻었음.

위 태봉(胎峯)은 정종, 경종, 영조, 인조, 태종, 중종, 현종의 태를 봉안한 곳이라 했다. 이를 보면 태봉(胎峯), 태봉2(胎封)은 태를 묻었던 봉우리에 연유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국토정보맵(25k 1960) 태봉 마을



태봉산.<출전: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 우리지역 역사인물

## - <충신,의병> 성와省窩 범기봉范起鳳



이 종 일

사)향토문화개발 협의회장

범기봉(1557~1593)은 조선 중기의 의병장. 자는 원유元有. 호는 성와 省窩. 본관은 금성. 범홍 范弘老의 둘째 아들로 북구 생용동에서 태어났다.

효성과 우애가 깊고 경서에 능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국세가 어찌할 겨를이 없이 급박한 지금 어찌 관군이 사수하지 못한다고 하여 왜적을 토벌할 도리를 잊을 수 있으리오.”하고, 형인 죽천 범기생范起生과 집안식구들과 함께 병기를 모아 김천일金千鎰 의병진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장사 몇 명을 인솔하고 금령金嶺의 적을 참살하고, 안산安山을 거쳐 인천仁川에 이르니 기세가 위풍당당하였다. 강화도로 진을 옮겨 어선을 개조하고 왜적의 선박을 나포해 400여 척의 병선을 구축했다. 1592년 9월 9일 이를 이끌고 나가 한강 양회진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 후 창의 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최경회崔慶會, 고종후高從厚 등의 의병장들과 경상도·전라도 등지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데 많은 공훈을 세웠다.

그리고 진주성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도장都將에게 말하기를 “호남은 국가의 근본이요, 진주晉州는 호남의 근본이니 진주를 수비치 못하면 어떻게 사직社稷을 보전하리오.”하고 바로 진주

■ 북구문화사료

로 입성入城하여 성문을 사수하다가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그가 탄식하기를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하고 장렬히 싸우다 순절하였다.

1605년 선무원종공신에 록선되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증직되었다. 1627년(인조 5)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그의 출생지인 북룡사에 제향 되었으나 1868년 훼철되고, 1914년 그 터에 유허비와 용호재를 건립하였다.

1962년 1월에 증좌승지성과 범공순의비贈左承旨省窩范公殉義碑를 광주광역시 북구생용동 129-1번지(모산 마을)에 건립하였다. 비의 규모는높이 310cm 폭 61,5cm 두께31cm이다.



증좌승지 성와범공순의비

**출전** 호남절의록, 광주읍지, 광주시사, 조선명신록, 북구 역사인물, 광주의 문화유적, 북구 문화유적조사보고서.

# 선비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 사람은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원장 직헌 **김 중 환**  
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 교육원장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古典고전에서 길을 찾다.”

○ 재능(才能)과 덕성(德性)을 갖춘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君子)다.

덕성(德性)은 덕(德: 의무적 善行)과 의(義: 正路: 바른 길)를 갖춘 本性 도덕(道德)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

## ◎ 선비(君子)의 3대 정신(精神)

인격(人格) · 의리(義理) · 실천[實踐= 행동(行動)]이다.

선비는 능력(能力)과 인격(人格) 실천(實踐)하는 감동(感動)이 있어야 한다.

## 선비의 자세 논어 자로편(子路篇)

선비는 君子이다.

유교(儒敎)에서 가장 모범(模範)으로 떠받드는 인격체(人格體)이다.

◎ 자공문왈 하여라 사가위지사(子)의잇고 자왈 행기유취하며 시어사방하여 불욕군명이면 가위사의니라.(子貢問曰 何如라야 斯可謂之士矣잇고 子曰 行己有恥하며 使사신갈 시於四方하여 不辱君命이면 可謂士矣니라.)

▶ 해설: 자공(子貢)이 “어떠하여야 이(斯) 선비라 말할 만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孔子)께 말씀하셨다. “자기 혼자(子)의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워함이 있으며 사방(四方)에 사신(使臣)으로 가서는 군주(君主)의 명(命)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이를 만하다.”

▶ 이것은 그 뜻(志操)은 하지 않은 바가 있고, 그 재주는 족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자공은 말을 잘 하였다. 그러므로 使臣 가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신 노릇하기가 어려우니, 비단 말만 잘함을 貴히 여길 뿐만이 아닌 것이다.

◎ 자공능언이라 고로 이사사고지하시니 개위사지란이 불독귀어능언이기이니라.(子貢能言이라 故로 以使事告之하시니 蓋爲使之難이 不獨貴於能言而已니라.)

▶ 해설: 자공(子貢)은 말을 잘 하였다. 그러므로 사신(使臣) 가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신(使臣) 노릇하기가 어려우니, 비단 말만 잘함을 貴(貴)히 여길 뿐만이 아닌 것이다.

역주(譯註) 1. 其志有所不爲 : 지조(志操)가 있어 나쁜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 자로 문왈 하여라야 사가위지사(子)의잇고 자왈 절절시시하며 이이여야면 가위사의니 봉우엔 절절시시요 형제엔 이이니라.(子路問曰 何如라야 斯可謂之士矣잇고 子曰 切切惓惓하며 怡怡如也면 可謂士矣니 朋友엔 切切惓惓요 兄弟엔 怡怡니라.)

▶ 해설: 자로(子路)가 “어떠하여야 이 선비라 이를 만합니까?” 하고 묻자 孔子께서 대답 하셨다.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하면 선비라 이를 만하다. 朋友 간에는 간절하고 자상히 권

면하며, 兄弟간에는 화락(和樂)하여야 한다.”

- ▶ 호씨(胡氏)가 말 하였다. “절절(折節)은 간곡하고 지극한 것이요, 시시(僣僣)는 자상하게 권면(勸勉)하는 것이다. 이이(怡怡)는 화열(和悅)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자로(子路)에게 부족한 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이다. 또 이것들을 시행함에 혼동하게 되면 兄弟간에는 은혜를 해치는 화가 있고, 朋友간에는 유순하기를 잘하는 손해가 있을까 염려되므로 또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 자왈 지사인인은 무구생이해인이요 유살신이성인이니라.(子曰 志士仁人은 無求生以害仁이요 有殺身以成仁이니라.)

- ▶ 해설: 孔子께서 말씀 하셨다. “지사(志士)와 仁人은 삶을 구(求)하여 인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 仁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 ▶ 지사(志士)는 뜻이 있는 선비요, 인인(仁人)은 덕(德)을 이룬 사람이다. 의리(義理)상 마땅히 죽어야 할 때에 삶을 구한다면 그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을 것이니, 그 마음의 덕을 해치는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경우에 죽는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덕이 온전할 것이다.

◎ 지사는 인인은 즉성덕지인야라 이당사이구생이면 즉어기심에 유불안의니 시해기심지덕야라 당사이사면 즉심안이덕전의리라.(志士는 仁人은 則成德之人也라 理當死而求生이면 則於其心에 有不安矣니 是害其心之德也라 當死而死면 則心安而德全矣리라.)

- ▶ 해설: 지사(志士)는 뜻이 있는 선비요, 仁人은 덕(德)을 이룬 사람이다. 의리(義理)상 죽어야 할 때에 삶을 구한다면 그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그 마음의 덕(德)을 해치는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경우에 죽는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덕이 온전할 것이다.

◎ 선비(중세 순수한 우리말)는 조선사회에서 학문(學文)을 닦는 사람을 예(禮)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특히 유교적(儒教的) 이념을 적극 수용하여 사회에 적절히 구현함으로써 선행(善行)을 베푸는 인격체(人格體)를 가리킨다. 한편, 오늘날에는, 선비는 관직과 재물(財物)에 대한 욕망(慾望)을 거부하고 의리(義理)와 지조(志操)를 원칙으로 소중히 여기는 학식(學識)과 예

의(禮儀)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품성(品性)이 앞선하기만 하고 현실(現實)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개요 오늘날 선비는 주로 유교적(儒教的) 의미(意味)로서 '어질고 학식(學識)과 인품(人品)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군자(君子) : 이를테면 孔子와 이에 앞서 있었던 요(堯)·순(舜)·주공(周公) 등을 말한다. 그런데 공자(孔子)는 “성인(聖人)은 내 아직 보지 모하였지만, 군자(君子)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한다.”(論語 述而篇)고 했다. 따라서 유교(儒教)는 누구나 노력에 의하여 도달하는 표준의 인물(人物)을 君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君子는 높은 도덕(道德)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래야만 되겠다.』는 사람의 한 본보기 君子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본다면 군자는 유덕(有德)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덕(德)과 학식(學識)이 높은 사람. 또는 덕(德)이 재주보다 나은 사람.

◎ [ 君子 ]

(1) 학식과 덕행(德行)이 높은 사람. 높은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 지덕(知德)을 수양하는 사람. 소인(小人)의 반대개념으로 유교사회의 이상적 인간상이다. 중국 주(周)나라 때의 신분 계층인 왕후(王侯)·경(卿)·대부(大夫) 등에 붙였던 미칭(美稱)이다. 그 후 유교사회에서는 유교적 덕성(德性)과 교양을 겸비한 인격자(人格者)를 지칭했고, 학덕(學德)이 훌륭한 사람이 높은 벼슬을 맡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군자(君子)라 했다. 높은 위치에 있다 하여도 지덕(知德)을 겸비하지 못하고 애민(愛民)하지 못하면 군자(君子)가 아니다. 비록 곤궁함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영달(榮達)을 희구하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의 모습이다. 《논어(論語)》에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대인(大人)을 두려워하고, 성인(聖人)의 말을 두려워한다. 또 군자가 갖는 德性으로 삼달덕(三達德), 곧 지(知)·인(仁)·용(勇)을 말했고 이는 인으로 집약된다고 했다. 아울러 천명에 순응하고 의(義)를 행하며, 널리 학문을 배우고(博文) 그것을 예로 단속해간다(約禮). 이런 사람이라야 군자(君子)이다.

◎ 율곡 이이(栗谷李珣)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군자가 가져야 할 생각과 몸가짐으로 구

사(九思)·구용(九容)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태산대종사는 “그 일을 먼저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라했다(《대종경》요훈품18). 정산종사는 옛 성인(聖人)의 말을 인용 ‘군자의 도는 부부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고 그 도를 화합·신의·근실·공익을 들고 있다(《세전》 부부의 도). 또 저 사람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더욱 정의(情誼)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라 했고(《정산종사법어》 예도편18), 군자는 외식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수(內修)를 철저히 하며, 항상 그 실력을 충실히 기르기에 힘쓴다고 했다(《정산종사법어》 근실편7).

(2)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등을 고결한 지조(志操)와 아름다움을 가졌다 하여 사군자(四君子)라 하고 또 연꽃을 군자(君子)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 유덕자(有德者)와 유위자(有爲者)를 이르는 말

그 후 유교사회(儒敎社會)에서는 유교적(儒敎的) 덕성(德性)과 교양(敎養)을 겸비한 인격자(人格者)를 지칭했고, 학덕(學德)이 훌륭한 사람이 높은 벼슬을 맡아 정치(政治)를 했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백성(百姓)을 사랑(愛)하는 사람을 군자(君子)라 했다. 높은 위치에 있다 하여도 지덕(知德)을 겸비하지 못하고 애민(愛民)하지 못하면 군자(君子)가 아니다. 비록 곤궁함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영달(榮達)을 희구하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의 모습이다.《論語》에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天命을 두려워하고, 大人을 두려워하고, 성인(聖人)의 말을 두려워한다.

중국 춘추시대 때에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도 쓰였다. 아내가 남편을 일컫는 말로 쓰기도 한다.

《예기(禮記)》〈곡례편(曲禮)〉에 따르면 군자(君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선한 행동(行動)에 힘쓰면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논어(論語)》〈이인편(里仁)〉에는 '군자(君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소인(小人)은 어떤 것이 이익인지 잘 안다. 군자는 어찌하면 훌륭한 덕(德)을 갖출까 생각하고, 소인(小人)은 어찌하면 이익을 추구하므로 항상 아부를 한다. 군자(君子)와 반대다. -

군자(君子)는 유교(儒敎)에서 '성품(性品)이 어질고 학식(學識)이 높은 지성인(知性人)'을 일컫는 말이다.

선비는 조선 사회에서 학문(學文)을 닦는 사람을 예(禮)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특히 유교적(儒教的) 이념을 적극 수용하여 사회에 적절히 구현함으로써 선행(善行)을 베푸는 인격체(人格體)를 가리킨다. 한편, 오늘날에는, 선비는 관직(官職)과 재물(才物)에 대한 욕망을 거부하고 의리(義理)와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학식(學識)과 예의(禮義)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품성(品性)이 양전하기만 하고 현실(現實)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 선비(君子)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 ◎ 선비의 3대 정신(精神)

인격(人格) · 의리(義理) · 실천[= 행동(行動)]이다.

선비는 능력(能力)과 인격(人格) 실천(實踐)하는 감동(感動)이 있어야 한다.



중종(中宗)은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기 위해 신진사림(新進士林)들을 중용(重用)하자 이들은 반정공신들과 추종세력인 훈구파의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을 비판하면서 새바람을 일으켰다. 정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림들은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추구하면서 훈구파들을 공박하며 중종반정공신들의 거짓됨을 삭제하려 하자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은 조광조일파가 역모를 꾸민다고 하여「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말까지 퍼뜨려 마침내는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켰다. 이 사화(士禍)로 능주에 유배되어 38세의 나이로 사사되고 김정, 기준, 김식 등도 유배 사사되었다.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로 인한 신진사류인 소장학자들의 피화(被禍)이다. 120여명이 참살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참화였다. 이 때 삭탈관직을 당한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은 정암과 함께 화순 능주로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는 화순 동북으로 유배를 왔으며, 호남으로 낙남하거나 유배를 온 선비들이 많았다. 기묘명현 기준(奇遵)은 서울 출신이다. 기묘사화 때 온성(穩

城)으로 귀양 가 사사되자 기진(奇進: 고봉 기대승 父, 기대승은 당시 서울에 있었다)은 권속을 거느리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광주 광산구 임곡으로 낙남하여 은거하였다. 기묘사화로 인하여 정암 조광조가 능주로 유배를 오게 됨으로 호남은 기복재가 왔다고 했다. 조광조를 영수로 법성현 흥지치(法聖賢 興至治)를 표방한 지치주의(至治主義) 정치의 좌절이요 수난으로서 호남 사림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호남 유학의 학문이 구체화되어 그 정통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때부터 전성기였다.

◎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 김정(金淨) 안당(사사), 양팽손(삭탈관직 : 능주로 유배), 최산두(동북 유배) 월봉 김광원(함경도 영변으로 유배), 윤행, 유성춘, 안 처순, 이영부, 박상, 고운, 안처겸, 박수량, 임봉, 정계성, 문헌, 남주, 귀양 보냄. 양산보 고향 귀가.  
기묘명현(己卯名賢)들은 호남의 여러 지역에서 자제와 후진을 교육(教育)하고 사회교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호남사림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조선 오백 년사에서 선비다운 선비는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 울곡(栗谷) 이이(李珣) · 퇴계(退溪) 이황(李滉) · 사계(沙溪) · 김장생(金長生)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선생 6인을 말한다. <2009년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양학부 교육자료 일부>

## 조선조 사림(士林)의 성격(性格)과 역할 및 用語

◎ 조선조 사림(士林)의 성격(性格)과 역할 역사적, 철학적 배경과 사림문화(士林文化)의 실체와 범위를 살펴보고 사림문화(士林文化)의 위상(位相)을 도학적(道學的) 의리적(義理的), 성리학적(性理學的), 측면에서 고찰(考察)하고자 한다. 사림문화(士林文化)가 조선조 사림문화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상(位相)을 가지며 그 의미(意味)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호남 사림문화의 위치가 새롭게 조명(照明)되고 현대적(現代的) 의미를 새롭게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밝히고자 한다.

선비의 삼대정신(三代精神) 인격(人格) · 의리(義理) · 실천(實踐)

선비는 능력(能力)과 인격(人格) 실천(實踐)하는 감동(感動)이 있어야 한다.

사대부(士大夫)와 비슷한 의미(意味)를 갖는 용어(用語)로는 사족(士族) · 사류(士類) · 사림(士林)이라 한다.

문벌(門閥)이 대대(代代)로 내려온 집안 문벌(門閥)이 높은 집안이나 자손(子孫: 선비의 집안)

첫째 사족(士族): 학자관료(學者官僚)를 배출하는 족속(族屬)을 의미(意味)하는데, 신분계층(身分階層)을 나타내는 광의(廣義) 양반(兩班개념概念)과 비슷한 의미(意味)

둘째 사류(士類): 학자관료(學者官僚)의 부류(部類)를 의미(意味)하며

현대(現代)와서 유림(儒林) 사림파(士林派): 김종직(金宗直) · 김굉필(金宏弼) · 정여창(鄭汝昌) · 김일손(金駟孫).

셋째 사림(士林): 사대부 지림(士大夫之林) 즉 학자관료들의 무리를 의미(意味)한다. 사대부(士大夫) 층(層)이 넓어져 관직(官職)에 모두 수용(收用)할 수 없게 되자, 관직(官職)이 없는 지식인(知識人) 선비(儒林)들이 많아지게 되어 이들을 사림(士林)이라 부르게 되었다.<한국역사의 이해 집문당>

이 사림(士林)이란 15 · 16세기 정치적(政治的) 상황(狀況)과 관련(關聯)하여 훈구(勳舊: 세조 때 세조의 충애를 받은 신하 대표적으로 정인지 신숙주 서거정 강희맹 등)세력에 상대 대는 의미(意味)로 주로 쓰였다<한국역사의 이해 집문당> 즉 15 · 16세기 훈구(勳舊)세력의 부조리에 대항하여 중앙(中央) 정계(政界)에 진출한 신흥정치세력을 가리킨다. 물론 사림(士林)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문인학자(文人學者)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는 너무 넓은 개념으로 적절치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사림이나 사류(士類)는 대체로 유자(儒者)집단 즉 유림사회(儒林社會)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指稱)한다. 그런데 유림(儒林)이라 해도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협의(狹義)로는 아무런 관직(官職)도 갖지 아니한 처사(處士)로서, 오로지 학문(學文)과 행실(行實)을 닦는 '선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광의(廣義)로는 관직(官職)의 유무를 불문하고 항상 학계와 재야(在野: 민간)를 배경으로 삼아 학덕(學德)을 닦고 속류(俗類) 이상으로 처세(處世)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그 개념은 사림과 성격(性格)을 달리하는 일파 즉 훈구파(勳舊派)와 대조된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림이란 지방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독서인군(讀書人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중앙(中央)의 정계(政界)에 진출하기보다는 鄉村에서 유향소(留鄕所)나 향청(鄕廳)을 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다. 이들은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志操)를 지키며 학문(學文)을 닦았던 선비들이었는데, 이들이 山間에 살았으므로 山林이라 부르기도 하였다<한국유학사>

이렇게 볼 때 조선조에 있어 '사림'이란 용어(用語) 자체도 매우 복잡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넓게 보면 관직(官職)의 유무(有無)를 떠나 항상 학계와 재야(在野)를 배경으로 삼아 학덕(學德)을 닦고 세속인과는 다른 처세(處世)로 살아가는 지식인 그룹을 일컫는다. 또한 좁게 보면 그 중에서도 아무런 관직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학문(學文)과 행실(行實)을 닦는 지식인 그룹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광의(廣義)든 협의(狹義)든 간에 공통점은 '학문(學文)'과 '덕행(德行)'을 중시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여 세속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부류를 의미한다.<한국사신론(개정판)>

## 조선조 사림(士林)의 성격(性格)과 역할 및 用語

조선조 士林의 성격(性格)과 역할 역사적, 철학적(哲學的) 배경과 사림문화(士林文化)의 실체와 범위를 살펴보고 사림문화의 위상(位相)을 도학적(道學的) 의리적(義理的), 성리학적(性理學的), 측면에서 고찰(考察)하고자 한다. 사림문화(士林文化)가 조선조 사림문화(士林文化)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상(位相)을 가지며 그 의미(意味)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호남 사림문화의 위치가 새롭게 조명(照明)되고 현대적(現代的) 의미를 새롭게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밝히고자 한다.

1. 士大夫와 비슷한 의미(意味)를 갖는 用語로는 사족(士族)·사류(士類)·사림(士林)이라 한다.

사족(士族): 학자관료(學者官僚)를 배출(輩出)하는 족속(族屬)을 의미(意味)하는데, 신분계층

을 나타내는 광의(廣義)의 양반개념(兩班概念)과 비슷한 의미(意味).

사류(士類): 학자관료(學者官僚)의 부류(部類)를 의미(意味)하며

사림(士林): '사대부 지림(士大夫地林)' 즉 학자관료(學者官僚)들의 무리를 의미(意味)한다. 사대부(士大夫)층이 넓어지면서 관직(官職)에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관직(官職)이 없는 지식인 선비들이 많아지게 되어 이들을 士林이라 부르게 되었다. - 한국역사의 이해 집문당 -

이 사림(士林)이란 15·16세기 정치적(政治的) 상황(狀況)과 관련(關聯)하여 훈구(勳舊)세력에 상대되는 의미(意味)로 주로 쓰였다. - 한국역사의 이해 집문당 -

즉 15·16세기 훈구(勳舊)세력의 부조리에 대항하여 중앙(中央) 정계(政界)에 진출한 신흥 정치세력을 가리킨다. 물론 士林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문인학자(文人學者)의 무리를 의미(意味)하는 것 같지만, 이는 너무 넓은 개념이므로 적절치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士林이나 사류(士類)는 대체로 유자(儒者)집단 즉 유림사회(儒林社會)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指稱)한다. 그런데 유림(儒林)이라 해도 거기에는 두 종류(種類)가 있다.

첫째 협의(狹義)로는 아무런 관직(官職)도 갖지 아니한 처사(處士)로서, 오로지 학문(學文)과 행실(行實)을 닦는 '선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광의(廣義)로는 관직(官職)의 유무를 불문하고 항상 학계와 재야(在野: 민간)를 배경으로 삼아 학덕(學德)을 닦고 속류(俗類) 이상으로 처세(處世)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그 개념(概念)은 士林과 성격(性格)을 달리하는 일파 즉 훈구파(勳舊派)와 대조된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림(士林)이란 지방(地方)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독서인군(讀書人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중앙(中央)의 정계(政界)에 진출하기보다는 향촌(鄉村)에서 유향소(留鄉所)나 향청(鄉廳)을 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다. 이들은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自身)의 지조(志操)를 지키며 學文을 닦았던 선비들이었는데, 이들이 산간(山間)에 살았으므로 山林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호남유학의 탐구 -

조선조에 있어 '사림(士林)'이란 용어 자체도 매우 복잡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넓게 보면 관직(官職)의 유무(有無)를 떠나 항상 학계(恒常 學界)와 재야(在野)를 배경으로 삼아 학덕(學德)

을 닦고 세속인과는 다른 處世로 살아가는 지식인 그룹을 일컫는다. 또한 좁게 보면 그 중에서도 아무런 관직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학문(學文)과 행실(行實)을 닦는 지식인 그룹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광의(廣義)든 협의(狹義)든 간에 공통점은 '학문(學文)'과 '덕행(德行)'을 중시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여 세속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부류를 의미한다.

그런데 士林이 이렇게 學文가 德行을 중시(重視)하는 데는 유교문화(儒敎文化) 즉 성리학적(性理學的) 문화전통(文化傳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치열한 수기(修己)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士라 할 수 있다. 그 修己의 내용은 성리학(性理學)을 주 전공으로 하여 그 이념(理念)을 실천(實踐)하는 것이다. -한국사신문,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

또한 士林 내지 사림파(士林派)란 역사적 배경 하에서 잉태된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멀리는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대한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등의 의리적(義理的) 실천(實踐)에서 그 연원(淵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세종 때에 내불당(內佛堂)의 건립(建立)반대운동이 있었고, 세조 때에는 단종(端宗) 복위를 꾀하던 이른바 사육신(死六臣)의 운동 그리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뜻을 품고 일생을 폐인으로 자처한 생육신(生六臣) 등이 있었다. - 이종태, 도학적 실천정신의 착근 -

1. 士大夫란 문관(文官) 오품(五品) 이상 사품(四品)부터 大夫라 한다. 五品 以下는 士(선비라 한다) 무관(武官)은 二品 以上부터 大夫(大夫)라 한다.

2. 사족(士族) = 문벌(門閥)이 높은 집안 그 子孫을 말한다.(門閥이 代代로 높은 집안)

3. 사류(士類) =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의 무리를 말한다.

선비의 三代精神 = 人格 · 義理 · 實踐을 말한다.

선비는 能力과 人格 · 實踐 하는 感動이 있어야 한다.

논어(論語)

자왈 행기유치하며 시어사방하야 불욕군명이면 가위사의니(子曰 行己有恥하며 使사신갈시 於四方하야 不辱君命이면 可爲士矣니)

자왈 사이회거면 불족이위사의니라.(子曰 士而懷居면 不足以爲士矣니라.)

4. 士林을 유림(儒林)이라고도 한다.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을 中心으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김일손(金駟孫),

士林派 士林의 영수(領袖)는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사림(士林)의 學文과 덕행(德行)을 중시(重視)하는 데는 유교문화(儒敎文化) 즉 성리학적(性理學的) 文化의 전통(傳統)에서 치열한 수기(修己)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소라 할 수 있다. 그 修己의 내용은 성리학을 주 전공으로 하여 그 이념(理念)을 실천(實踐)하는 것이다  
士林派의 學問的 淵源이 性理學的 義理 實踐이라는 기준에 따라 여말(麗末)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점은 의리(義理)적 실천(實踐)에서 그 연원(淵源)을 찾을 수 있다.

5. 협의(俠義) = 처사(處士)

6. 광의(廣義)든 협의(俠義)든 간에 공통점(共通點)은 학문(學文)과 덕행(德行)을 중시(重視) 여기고 세속인과는 달리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비를 사림(士林)이라 한다.

- 2019년 07월-12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양학부 교육자료 일부





## 무드리 문예마당

한시 \_ 정득채 외 18명 (광주서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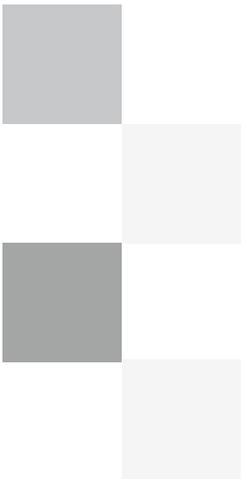
무등산 \_ 이삼문

무정한 자연 \_ 배병수

소방안전 지킴이 \_ 김경생

고단한 삶에 희망이... \_ 방기욱

김덕령의 태몽이야기 \_ 북구문화원 편집실



## 瑞石秋月

여기에 실린 漢詩는 한사회 광주서림음사(光州瑞林吟社) 회원들의 작품이다.

광주서림음사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은 26명으로 1972년 8월 5일 광주시 계림동 수성노인당에서 수계 창립 서림음사로 발족하여 매월 25일 정기 아회일로 정하여 매월 아회를 개최, 한시의 근본 중핵인 동양 시문학의 모체이며 순수한 인간 본연의 지정의 혼백 경지를 최고로 표현하고 묘사 시킨 사상을 계절 순환과 변모 상황의 가경에 따라 삼라만상의 변화 조성된 기려 묘경을 자연법칙과 순리를 획득 감상하며 생활 주변에서 각종행사를 비롯하여 윤리, 이념구현, 실천행사와 축하 추모 제사 등에 경성 제시로 시집 17집을 제작 배부하여 한시 문화창달이 일익 발전 하였으며 會長 湖亭 李德在, 副會長 松下 文承烈, 總務 松隱 任昌奎이다.

한시 창작활동에 일취월장하여 광주에서 제일 우수한 한시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 瑞石秋月

梧鳳 鄭得采

淸風立石 氣高秋

맑은 바람 입석대 청기 높은 가을이여

瀟灑幽園 碧玉流

소쇄원 깊은 곳에 벽옥 같은 개울 흐르네

無等山前 明水鏡

무등산 앞에는 거울같이 밝은 달이요

光州湖上 白雲樓

광주호 위에는 흰 구름 누각이네

曉鍾一打 醒人夢

새벽의 종소리 한 번에 사람 꿈을 깨우는데

暮笛三聲 喚客愁

저물녘 피리소리 나그네 시름 자아 내네

百里錦南 皆勝地

백리의 금남로는 모두 승지이고

林泉何獨 古仙遊

임천에 어찌 홀로 옛 신선만 놀았는가

# 瑞石秋月

萬年齋 安棟周

瑞石臺邊紫染秋

서석대 주변은 붉게 물든 가을인데

蘆花似雪雁聲流

갈대꽃은 눈과 같은데 기러기 소리 흐르네

淸光皎潔縣銀燭

달빛은 교결하게 은촉을 닮았고

精彩嬋娟映畫樓

정채는 선연하게 화루를 비추네

豪客如今挑酒興

호객은 지금 주흥을 돋우고

詩仙於此世塵愁

시선은 이에서 세속시름 찢는다

欣然玩賞吟觴樂

즐겁게 구경하고 읊고 마시는 즐기는 가운데

苦海渾忘祕境遊

세상고통 모두잊고 비경에서 돌아보세

# 瑞石秋月

云紗 柳和善

## 名勝瑞石碧山秋

명승지 서석대는 가을산이 푸르고

## 塞北憂慮影雁流

북쪽 변방 기러기 그림자 무리를 걱정하네

## 溪谷證心携仗嶺

증심사계곡에서 지팡이 끌며 재님는데

## 菊香知友待登樓

국향과 친한 벗은 누정에 올라 기다리네

## 晚風冷氣登花起

저문 바람 냉기에 등잔 불통 생각인데

## 佳景丹楓日淺愁

가경의 단풍들은 날짜없이 근심하네

## 災結熟田紅染伴

재앙입은 논과 밭도 붉게 물들어 짝이 된다

## 紛紜素月白雲遊

소란한 세상 흰달은 흰구름과 함께였네

# 瑞石秋月

誠齋 朴東申

## 雨順風調大有秋

풍년드는 가을에 비바람 순조로워

## 遙望佇立暮江流

우뚝 서서 멀리 저문 강을 바라보며

## 老衰不敏歸何處

노쇠하여 불민해서 어느 곳으로 갈거나

## 行路無知坐此樓

갈 길 알지 못해 이 누대에 앉아 있네

## 連日塵思今夜夢

날마다 속된 생각 오늘 밤에 꿈이런가

## 晚年善忘故鄉愁

늙바탕 건망증에 고향 생각 어딜 갔나

## 登高必賦騷人詠

서산에 올라 흥에 겨워 시인은 읊조리며

## 瑞石臺前看月遊

석대 앞에서 달구경하고 놀고 있다네

# 瑞石秋月

學松 宋泰鍾

瑞石楓林漸染秋

서석산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을에

東昇明月樹間流

동에서 솟은 병원 나무 사이로 흐른다

葉聲瑟瑟清風谷

낙엽소리 쓸쓸한 맑은 바람

銀色涼涼爽氣樓

은빛이 서늘한 상쾌한 기운 누정이라

舞竹書容邀世樂

서창에 대 춤추니 세상 즐거움 맞이하고

飛光石砌去塵愁

땃돌에 빛 날리니 세상 근심 사라진다

與朋遲暮興同載

벗과 같이 늙은이 흥취 같이 하면서

散步吟詩夜景遊

산보하며 시 읊고 밤경치 즐긴다

# 瑞石秋月

秋岡 吳忞植

瑞石高峯倍九秋

서석의 고봉이 구월을 맞이함에

容顏寬大月華流

관대한 용안에 달빛이 흘러내리네

下垂重貌光州水

중후한 모습은 광주호수에 드리웠고

遠發松聲息影樓

솔바람 소리는 식영정루에 일어나네

夜半光輝難就寢

한밤의 밝은 달빛 잠들기 어렵게 하고

山中寂寞易凝愁

산중의 적막은 슬픔에 영기기 쉽네

廣寒殿怕姮娥舞

월궁에는 항아들이 춤추고 있을 것이니

我友銀蟾自酌遊

나는 달을 벗하여 자작하며 즐기리라

# 瑞石秋月

青松 文鎬載

蘆花滿發燦高秋

갈대꽃 만발하니 높은 가을 하늘 빛나고

瑞石玲瓏歲月流

서석대 영롱함은 세월 속에 흘러가며

風韻丹楓娟染寺

풍류운치 붉은 단풍 아름다운 산사 물들고

煙霞映爛秀麗樓

안개노을 찬란함은 누각에 수려함 빛추며

芳樽互讓登臨樂

맛 좋은 술 서로 사양하며 등림하여 즐기고

往事相思玩賞愁

지난일들 서로 생각속에 보고 즐겨 근심 잊으며

墨客誇矜詩取勘

시인묵객 자랑하며 시의 정취 느끼고

嬌娘樹蔭笑談遊

교랑들은 그늘아래 소담 속에 즐기네

# 瑞石秋月

省悟 金得煥

輝影晴天皓月秋

휘영청 맑은 하늘에 흰 달이 뜬 가을

白雲與鳥自由流

흰 구름과 새가 자유롭게 흐르네

詩朋一起探名利

시벗과 함께 명찰을 찾아

無等山中登古樓

무등산 중의 옛 누각에 올랐네

揮扇詠歌環湍

부채질하며 노래하니 서기가 감돌고

巖盤酬酌解塵愁

바위 위에서 수작하며 속세 근심 푸네

神仙俗世人間別

신선과 속세를 사람은 구별하건만

今日忘心桃境遊

오늘 마음마저 잊고 도원의 장소에 노니네

# 瑞石秋月

茶朝 朴昌用

蒼空立石淡高秋

푸른 하늘 입석대

銀漢迢迢萬里流

맑고 높은 가을이라

無等山頭明玉殿

무등산 옥전엔 밝은 달이 떠오르고

詩光州湖上水煙樓

광주호반 위에는 물안개 누각이네

樹林各已治粗樂

숲속의 나무들은 각기 몸치장에 즐겁고

獸鼠群冬生活愁

다람쥐 무리들은 겨울살이가 걱정이네

黃野豐饒農喜笑

누런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미소가 가득하니

我親招坐一杯遊

나도 친구 불러앉아 한잔 술로 즐겨보세

# 次愚岩百歲韻

春溪 柳晏重

感服非如胡蝶夢

호접몽 같은 삶이 아님에 감복하나니

儉勤生活率先躬

근검의 생활신조로 솔선수범 하시도다

讚揚屢代遺徽蹟

여러 대에 아름답게 끼친 업적을 찬양하고

榮顯千秋振偉功

천추토록 떨친 위대한 공 영화스럽게 나타나네

實績自應能學古

실적은 스스로 능히 옛을 배워오고

虛名豈可復求蒙

헛된 이름 어찌 감히 욕시라도 다시 쓰길 바랄까

育英關校其焉肇

육영사업인 학원 설립한지 처음이 어느 때인가

景慕岩翁頌不窮

우암 선생을 크게 사모하여 송축함 그지 없네

# 次愚岩百歲韻

松隱 任昌奎

覺堂設立幾過年

횡당을 설립한지 몇 년이 지났는가

現在躬行盡最先

현재까지 궁행하며 최선을 다하셨도다

卓越經綸農業育

탁월한 경륜은 농업을 육성하고

崇高學問講壇堅

승고한 학문은 강단을 견고히 했네

生徒邁進尋諸職

생도들 매진하여 제직을 찾고

老長詩歌韻律全

장로의 시가는 운율이 온전하도다

遠近騷人稱讚裡

원근의 소인들이 칭찬하는 가운데

功名偉蹟後孫傳

공명 위적을 후손에게 전하세

# 次愚岩百歲韻

立軒 申亨澈

謹賀愚岩遠大夢

삼가 우암의 원대한 꿈 하례하노니

歷來雪月幾勞躬

겪어왔을 설월들 몇 번인가 몸고생인가

由仁行義無疆壽

인으로 의를 행함은 끝없는 수복이요

興學施恩盖世功

흥학시은은 온 세상의 공이로세

博愛長傳千里壑

박애는 길이 천리학에 전해오고

育英廣及九寰蒙

육영이란 저 멀리 구환 어린이에 다다르네

官民士庶無非洽

관민 사서가 흡족 앎음 없는데

又復四隣恤四窮

또 다시 사린에 홀사궁이었는데

# 次愚岩百歲韻

旺海 申東柱

趙翁鶴髮百週年

조옹 춘추 백주년에

獎學推知竭最先

장학을 미리 알고 최선을 다하셨네

正道牽攀水似潔

도를 이끌어움이 얼음처럼 투명하고

真心控引鐵如堅

진심으로 이끌어움이 굳어 단단하기 철과 같았네

菁莪茂毓功勳大

푸른 싹을 무성하게 기른 공훈이 대단하고

墳典磋商節操全

고전을 갈고 닦았던 절조가 온전하였네

立教明倫弘毅盡

교육을 세우고 윤기를 밝게하여 도량이 넓고 굳세니

吾鄉發展永年傳

우리 고향 발전이 영원하게 전해지리

# 次愚岩百歲韻

興岩 蘇仙永

享福期年我海東

우암 선생 백년의 복 해동에서 누리시니어진

仁人得壽古今同

사람이 득수함은 고금이 한가지이네

早臨學界培良俗

일찍이 학계에 임하여 양속을 복돋았고

晚就勳章振美風

늦그막에 훈장을 받아 미풍을 떨치셨다오

愛國精神傾總力

애국하는 정신으로 총력을 기울이시고

敬天意志樹豐功

경천하는 의지로서 큰 공을 세우셨구려

平生事業圓無缺

평생동안 하신 사업 결함없이 원만하며

華閥繁榮永不窮

빛나는 가문 번영하여 길이 다함이 없도다

# 次愚岩百歲韻

青潭 閔永順

鐵樹花開百歲年

철수화가 백년에 피었으니

玉城瑞宿降筵先

옥과의 상서별이 자리에 내렸구나

平生不息人才養

평생으로 쉬지않고 인재를 양성했고

晝夜研磨學界堅

주야로 연마하여 학계를 견고히 했네

壽似大椿千世到

수가 대춘 같아 천세에 이를 것이요

福如滄海四時全

복은 창해 같아 사계절 온전하여라

芳名偉蹟誰無仰

방명위적 누가 우러르지 않겠는가

三愛精神永久傳

삼애정신 영구히 전해지리라

# 次愚岩百歲韻

素巖 金容淑

偉大愚岩百壽年

위대한 우암 선생 백수의 해가 되오니

南星長照玉堂先

남성이 먼저 옥당에 길게 비추었네

殫誠建序將才俊

정성 다하여 학교를 세워 재주 뛰어난 사람 기르고

盡力薰陶學校堅

훈도에 진력하여 학교를 견고히 하였네

壅塞生徒賢德布

옹색한 생도에게 어진 덕을 베풀고

貧寒隣域善心全

빈한한 이웃에 오로지 선심을 베풀었도다

趙門慶事誰何羨

조문에 경사를 어느 누가 선망하지 않으리오

功業芳名永久傳

공적이 뛰어난 꽃다운 그 이름 영구히 전하리오다

# 次愚岩百歲韻

松下 文承烈

愚翁百歲迓今年

우암 선생님께서 백세를 금년에 맞아

八域儒林競賀先

팔도강산에서 유림들이 앞다투어 하례하네

處事公明松似節

처사에 공명함은 소나무와 같은 절개요

斥邪衛正石如堅

척사에 위정함은 돌과 같은 굳음이네

捨生取義千秋鑑

사생하고 취의함은 천년동안 거울되고

決死殫忠萬古全

결사 앞에 탄충함은 만고에 온전하리

社會獻身稱頌際

사회에 헌신함을 칭송하는 즘음에

芳名懿績燦長傳

방명과 의적은 길이 전해 빛나리라

# 次愚岩百歲韻

德山 金澤洙

育英創學大人夢

육영사업 학원 창설은 대인의 꿈이오

事行繁多盡鞠躬

행한 일 번다하여도 몸을 굽혀 최선을 다하셨네

禮樂傳承成偉歲

예와 악을 전승하여 위대한 세력 이루었고

詩書講論樹鴻功

시와 글을 강론하여 크나큰 공 세웠도다

崇文廣業天恩得

학문을 숭상하고 사업을 넓혀 천을 얻었고

舉善明良地德蒙

선을 천거하고 어진 이름 밝혀 지덕을 무릅썼네

粉骨碎身扶訓導

분골쇄신하여 교육만을 붙잡았으니

後生景慕永無窮

후생들 크게 사모하여 깊이 다함 없으리

# 次梧鳳九秩生朝感韻

峇隱 蘇秉昶

吳鳳於焉九秩年

오봉선생님은 어언 구십이 되었고

大成學問敢誰先

학문을 크게 이루어 누가 감히 앞서랴

早臨教育仁風致

일찍이 교육계에 임하여 인풍을 일으키고

晚到騷壇德業全

늦게는 소단에 이르러 덕업이 온전토다

丹藥神方身少處

단약과 신방으로 몸이 젊어지는 곳이요

杞泉精液壽尤筵

기천의 정액으로 수를 더하는 자리라네

芝蘭茂盛和琴瑟

자손들이 훌륭하고 노부부도 화락하니

華閼簪纓萬代延

빛나는 집안에 벼슬은 만대에 뻗치리라

# 무등산



이삼문  
시인

다 안아주고  
다 들려주는  
뜨거운 정열이  
속삭이는 민중의 무등이어

목 마른 구름을 안고  
비 바람 머무는 하늘 높이  
오천년 강물이  
줄줄이 서러 꿈꾸고

귀천이 따로 있으랴  
언재나 그랬듯이  
천둥에 눈 감고  
풀잎 소리에 귀 밝은  
치맛 자락 찢기고 패여도

다시 고운 어머니 산

사월에 하얀 민들레  
오월에 붉게 멎든 장미  
꽃씨마다 태양이 영글어  
따뜻한 물보라 휘날리면  
별이 된 꽃잎들은  
가슴 가슴에 활 활 타리라

## 무정(無情)한 자연(自然)



송천 배병수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 나는 성장기에 이미 체험한 터라 이 말에 곧바로 수긍이 간다. 내가 어린 시절엔 헐벗고 못살았기에 ‘춥고 배고프다’는 말은 어느 지역에서나 두루 통했다.

겨울철엔 온도계가 없어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방문 손잡이를 잡으면 쇠붙이에 자석이 달라붙는 것처럼 손이 문고리에 짹 짹 달라붙었다. 마을 어린애가 노상에서 불일을 보면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추웠다. 그 정도로 강추위가 몰아칠 때 추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겠지만, 많은 청소년이 뽀뽀 얼어붙은 강과 호수에 나가 썰매 타기를 즐겼던 일이 어슴푸레 떠오르기도 한다.

지구는 계속 점점 더워지는 것이 사실인가? 추워서 빙하기가 온다는 설도 있으니 과연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 현대의 과학으로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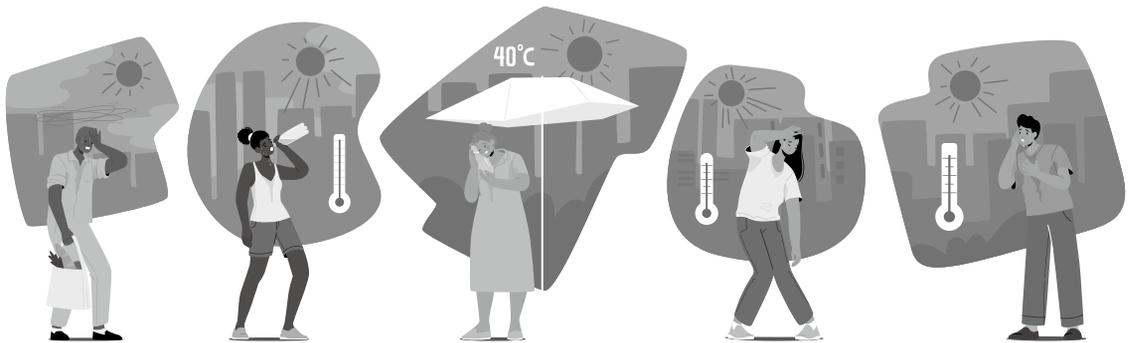
이슬람권 최대 연중행사는 하지(hajj)라는 메카를 향한 성지 순례다. 이슬람교 5대 의무의 하나로 이슬람 신자라면 평생에 한 번 이상해야 하는 종교행사다. 날씨는 음력인 이슬람력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는 그 시기가 한여름이라 섭씨 52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과 싸워야 했다. 지난해에는 순례 도중에 200명이 사망했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6배가 넘는 사망자가 속출했다.

6월 19일까지 계속된 이번 하지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성지순례 자를 나라별로

할당하여 총 180만 명을 허가했다. 문제는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었다.

순례자들은 양산을 쓰고도 분무기로 물도 뿌려 보았지만, 살인적인 무더위엔 속수무책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은 순례객들이 다니는 길목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온열질환 전문 병상도 마련했으나 사망자는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우디의 보건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의 88%는 미등록자로 피약별 아래에서 먼 거리를 휴식처 없이 걸어서 이동하였고, 에어컨이 나오는 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적발되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꼭 실천해야 할 의무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순례는 이음새 없는 흰 천으로 된 '이 호람'을 두르고 메카로 들어가 악마 돌기둥에 돌맹이 49개를 던진 후 기도와 희생제 등의 의식을 지낸 다음 메디나까지 걸어와 '예언자의 사원'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송천 배 병수 (松泉 裴 炳 洙)

(2006년)《수필시대》. (2007년)《수필문학》등단.

(2009년)《소년문학》(동화).

세계문학상 공모(2021년) 본상. 단테 탄신 기념 문학상 대상. 제7회 한국문협 작가상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 제12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동상

(사)영호남수필문학협회 창립 이사장상(2019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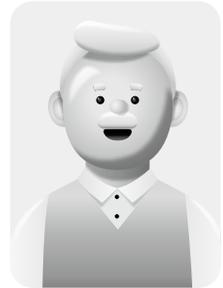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한국아동문학회 이사. 한국수필가연대 제13대 부회장

(사)영호남수필문학협회 부 이사장

저서 (수필집): 《멈춤 그리고 시작》,《순환의 여정》,《갈대의 춤》

(동화집): 《청설모가 왕인 나라》

# 소방안전 지킴이



**김경생**  
북구문화원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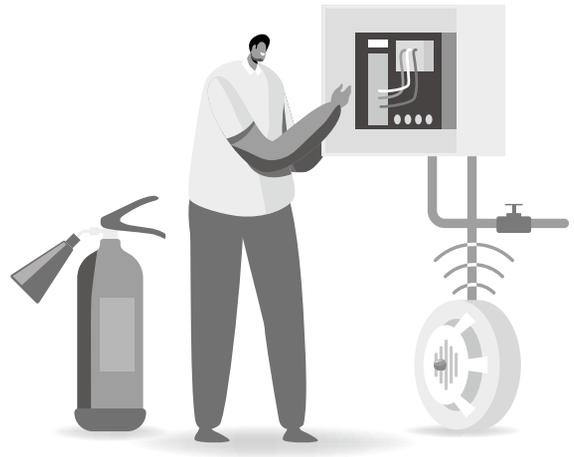
오늘도 노란조끼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노란 조끼는 문화원에서 지원한 개인 지급품으로 다른 일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깔을 선택한 것 같다. 가방 안에는 소화전 관련 위치도면과 위치내역, 낫, 음료 등이 있다. 8시부터 일을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은 매우 바쁘다. 70이 넘는 나에게도 일자리가 있어 출근길은 항상 엔돌핀이 넘쳐나 기쁨 만족이다.

나의 일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문화원에서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 하는 소방안전지킴이 사업이다. 우리 구 관내에는 1100여개 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데 3명이 1개조가 되어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 3조가 맡고 있는 소화전은 105곳이다.

소방시설인 소화전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로 화재시 불을 끄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시설물이다. 물을 뿜는 소화호스가 상수도 급수관과 연결되어 있는 장치로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시설물을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는데 상시 비상대기하고 있는 소방관이 이 많은 시설물을 점검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든다. 이러한 사업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소방관들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다니 뿌듯함이 앞선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소화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주변 잡초제거와 쓰레기를 정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계도한다.



나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고 난 후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여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나의 고통이었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해 보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마을 앞에 있는 공원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것이 나의 일상생활이었다.

그러던 차 직장 동료로부터 문화원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노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집 요강을 보니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소방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한다. 동료와 같이 참여하기로 하고 접수를 했다.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는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무난히 통과하고 2월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보이지 않은 환자다. 남성 노인이면 대부분 겪게 되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퇴직 후 고생하다가 2022년도에 전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시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

의사 선생님께서로부터 암환자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앞이 캄캄해지고 실의에 빠졌었다. 남의 일이 아니었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심에 빠져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의사는 초기단계이니 수술을 서두르지 않고 더 지켜보자고 한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으나 마음은 항상 편하지 않다.

제2의 인생을 사는 나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부터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른다. 일을 할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린다. 매일 1만5천보 이상을 걸어 다니다 보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적은 보수지만 나의 병원비, 손주 용돈, 애경사비, 모임회비 등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다. 특히 모든 잡념을 없애고 일에 열중하다보니 내가 환자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해 지는 느낌이다.

처음에는 소화전을 찾아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고 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는데 이제는 몇 회를 반복하다보니 많이 수월해 졌다. 우리 조원 3명은 전 직장 동료들로 서로 아는 사이여서 허물없이 농담도 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한다.

우리 3조가 맡고 있는 소화전은 우리구 관내 대촌동, 월출동, 용강동, 용두동, 본촌동, 오룡동, 지야동으로 법정 7개동에 105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지역으로 소화전과의 거리가 가깝게는 200m 정도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은 2km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곳이 있어 이를 점검하는 데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소화전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소화전을 점검하던 중 첨단 사거리에서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화전을 발견하고 즉시 관내 건국119안전센터에 통보하여 복구하였고 도로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거푸집을 소화전 위에 쌓아놓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또한 119안전센터에 통보하여 처리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소화전 5m이내 불법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상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맡고 있는 지역이 외곽이다 보니 소화전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여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으로 매회 점검 때마다 풀베기 작업도 동시에 한다.

끝으로 작은 일이지만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이 조금이나마 행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단한 삶에 희망이...



**방기옥**  
북구문화원 회원

사업을 정리하고 어린이 보호차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아내도 노후 대책을 위해 몸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해야 했다. 오늘도 점심을 먹고 귀여운 어린이들을 태우고 학교들이 많은 어린이 보호 지역을 지난다. 그곳은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놓은 지역이다.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발바닥이 뜨겁고 발목이 아플 정도다. 여름 방학이면 학원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행량도 많아진다.

나이 70이 넘으면 아무래도 고령이 되기 때문에 힘이 벅차기도 하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운전밖에 할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해야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자고 그 이튿날 발등이 부어오르기에 동네 외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통풍인 것 같으면서 약을 처방해 주고 주사만 한 대 맞고 3일간 약을 먹었는데도 발등이 더 심하게 부어 고름이 차기 시작, 의사가 오진을 한 것이다.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다. 다른 분들에 의해, 광주에서는 수술을 하지 말고 서울로 가라고들 해서 자녀들도 모두 서울에서 살기에 서울에 있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2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 걷기 운동을 하는데, 지난해 9월 아내마저 심장 수술에, 또 교통사고로 왼발 수술까지 하였다.

부부가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 동사무소에 찾아가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나에게 맞는 일거리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아내와 함께 모임을 하던 교우분께서 장부가 목소리가 좋으니, 북구청 앞에 있는 문화원에 가보라기에 귀가 솔깃하여 문화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사무실에는 직원분들 세 분이 친절히 대해 주었다. 설명을 듣던 중에 제일 귀가 솔깃한 것은 문화 예술 공연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로서는 발목이 지금도 저리고 붓고 걸음을 많이 걸을 수가 없기에 공연단에 들어가 노래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 옆 사무실로 옮겨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기에 얼떨결에 두 곡을 부르거나니, 옆에 남자분께서 여기에서 보다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그때 나는 용기가 생겼다. 정신없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문화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완도로 탐방도 다녀왔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며칠 전 문화원 문자로 원고한다기에 부족하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본다.

문화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전통이고 유산인 것 같다, 포근하고 안전성이 느껴진다. 또한 이번 문화원에서 완도 탐방을 통하여 많은 교훈도 얻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다. 수목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는 잊을 수가 없다!

완도 타워, 정도리의 교훈은 그 파도에 아름다운 돌 보석이 되기까지 밀려오는 파도에 견뎌야 하는 아픔처럼, 우리 인간도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성숙해간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자연으로부터 얻었고, 장보고의 변화된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공연을 다닌다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함보다 높고 병들고 아픔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보내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활력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인 것 같다.

모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람된 일이라 생각한다.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교화 일로 재소자들을 돌보는 일을 25년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 같다.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도록 하게 해 주신 문화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며 어렵게 계신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 그들이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 김덕령의 태몽이야기

북구문화원 편집실



김덕령 장군 생가

충효리 마을에는 광산김씨(光山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벼슬이 찬성(贊城)에 오른 이도 목사를 지낸 이도 모두 이 부락에서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앞들 논밭에 철따라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에 부지런하고 저녁이면 가마나나 돛자리, 소쿠리 짜기와 길쌈을 하면서 밤늦도록 세상이야기를 한다. 1566년 3월 어느 봄밤이었다. 이 마을 김봉변(金鵬變)씨 집에서 부인 남평반씨(南平潘氏)가 실꾸리를 감으면서 길쌈하는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골짜기를

스쳐오는 맑은 바람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큰 범이 느닷없이 반씨의 품속에 들어와 안기지 않는가! 부인은 조금도 두려움 없는 얼굴로 범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범은 물지도 않고 고양이처럼 다소곳했다. 부인은 눈을 뜨고 생각해 보았다. 이상한 꿈이었다. 그때 마침 중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다.

“우리 집 양반이 돌아오시니 오늘은 이만 길쌈을 거둡시다.” 반씨 부인의 권유에 여인들이 모두 일어섰다. 밖에서는 남편의 기침 소리가 두어 번 트락을 울렸다. 여인들이 가고난 뒤 어느 때 같으면 사랑으로 들어야 될 남편이 안방 문을 열었다. “웬일이세요. 오늘은...?” “부인이야말로 왜 그리 놀라오?” “실은 조금 아까 호랑이 꿈을 꾸었어요.” “허 이 집안에 장군 나겠구먼!” 남편의 서슴없는 익살에 반씨 부인은 후딱 두 볼이 뜨거워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반씨 부인은 곧 선 하품을 쏟게 되고 몸이 피로해진데다가 입맛조차 시원치 않았다. 몇 달 전의 호랑이 꿈이 태몽이었음을 깨달은 반씨 부인은 몸을 정결히 하고 음식도 가리는 한편 종들에게는 말도 조심히 하는 등 범절에 마음을 쏟았다. 1567년 12월 29일 저녁에 반씨 부인은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때 닭이 화를 치면서 새벽을 알렸고 산파가 더운물로 아기의 몸을 씻어 산모 곁에 누어 놓으면서 사내아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이윽고 전갈을 하기 위해 하인들이 햇불을 밝혀들었다. 그들은 사랑채로 가다가 호랑이 두 마리가 트락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하였다.

“아이구머니”하는 종들의 다급한 소리, 그 소리에 잠자던 봉변 어른과 손님들까지 문을 열고 뛰어 나왔다. 그들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욱 괴이한 것은 두 호랑이가 이내 어슬렁어슬렁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변 어른은 “산신령이 내 집에 산고가 있는 것을 아시고 무사한가 지켜보도록 호랑 보내신 게 틀림없소....”하고 말하였다. 과연 두 호랑이는 개, 돼지 따위 가축 한 마리 해치지 않고 순순히 사라진 것이다.



**제보자** 북구 충효동 480, 김종영(남, 71세), '광주의 전설 (1990)

# 제30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 | 입상자작품 |

### 그리기 부문

수상내역	성명	학교(소속)	학년반	훈격
대상	송지윤	지산중학교	2-7	광주시교육감상
최우수상(3명)	이다윤	서강중학교	2-5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김민서	무등초등학교	3-3	"
"	배준성	동림초등학교	1-1	"
우수상(5명)	이규현	지산중학교	2-4	광주문화원연합회장상
"	김승주	신세계유치원	영의정1반	"
"	문소예	나무와 미술학원	7세	"
"	박연아	문흥중앙초등학교	4-3	"
"	곽예상	한울초등학교	2-1	"
장려상(5명)	이주원	아이쿰미술학원	7세	북구문화원장상
"	이도윤	신세계유치원	좌의정2반	"
"	천희서	동림초등학교	1-2	"
"	이준서	무등초등학교	3-3	"
"	정서영	새별초등학교	2-3	"
가작(5명)	오세빈	법무부가온어린이집	7세	북구문화원장상
"	박유현	본촌초등학교	3-3	"
"	황류엘	담주초등학교	4-1	"
"	이소윤	무등초등학교	6-2	"
"	김진아	본촌초등학교	4-5	"

### 글쓰기 부문

수상내역	성명	학교(소속)	학년반	훈격
대상	김범수	고려고등학교	3-8	광주시교육감상
최우수상(2명)	박하윤	동신중학교	1-5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정소윤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4-1	"
우수상(3명)	이서아	두암초등학교	6-2	광주문화원연합회장상
"	양서훈	풍암초등학교	4-5	"
"	정하윤	계림초등학교	2-9	"
장려상(5명)	김유은	하백초등학교	4-1	북구문화원장상
"	정예나	장성중앙초등학교	5-2	"
"	오수아	산정초등학교	6-10	"
"	박다경	문우초등학교	6-1	"
"	박담희	성덕초등학교	6-2	"
가작(5명)	김지호	하백초등학교	4-4	"
"	서소망	문화초등학교	3-1	"
"	고현서	서림초등학교	3-1	"
"	최유안	오정초등학교	6-1	"
"	강승우	성덕초등학교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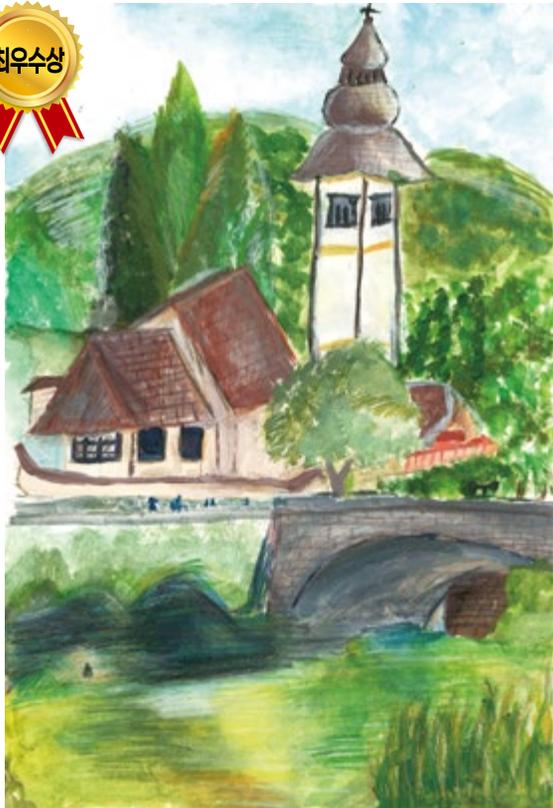




대상 송지윤 (자신중학교 2-7)



최우수상 이 다 윤 (서강중학교 2-5)



최우수상 김 민 서 (무등초등학교 3-3)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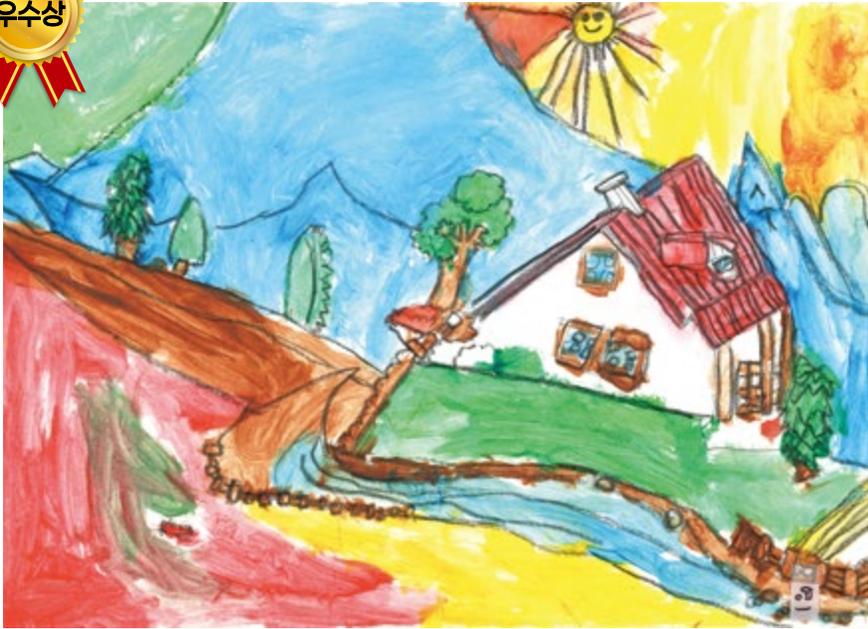


최우수상 배 준 성 (동림초등학교 1-1)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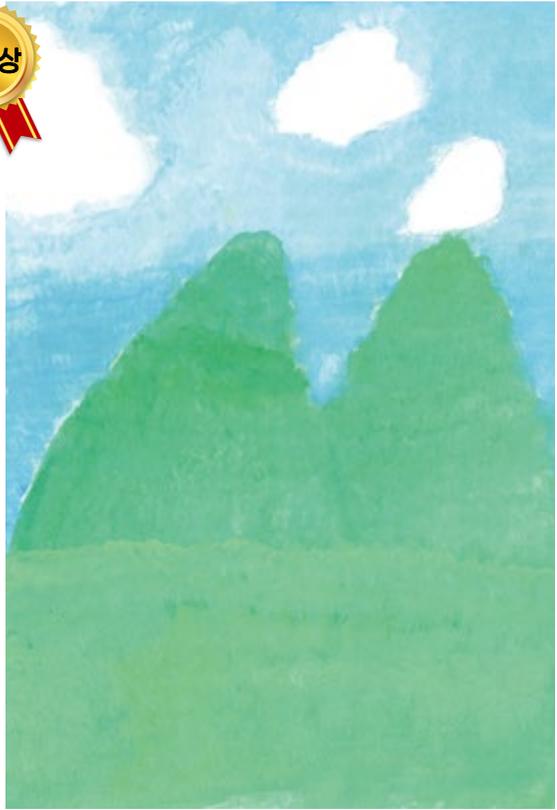
우수상 이 규 현 (지산중학교 2-4)



우수상 김 승 주 (신세계유치원 (영의정 1반))



우수상 문 소 예 (나무와 미술학원 7세)



우수상 박연아 (문흥중앙초등학교 4-3)



우수상 광예상 (한울초등학교 2-1)

## 장려상



장려상 이 주 원 (아이콩미술학원 7세)



장려상 이 도 윤 (신세계유치원 (좌의정 2반))

## 장려상



장려상 천희서 (동림초등학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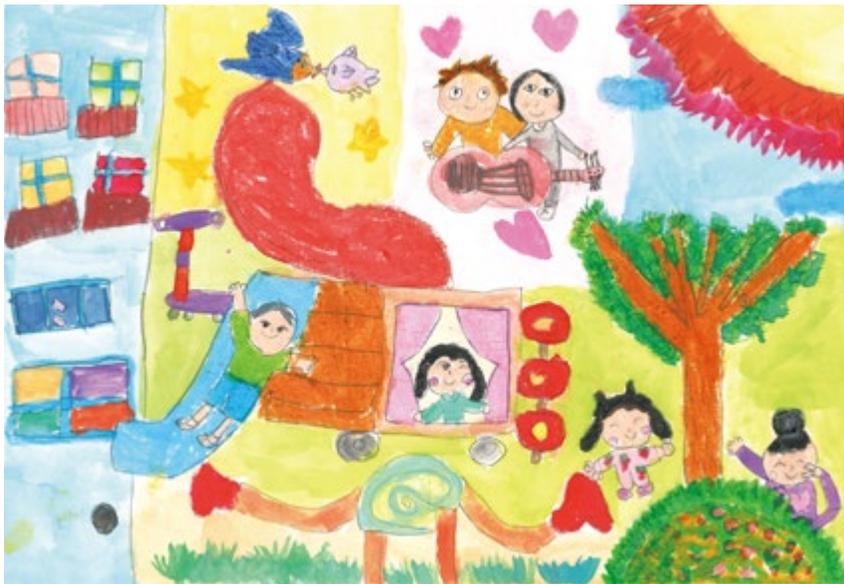


장려상 이준서 (무등초등학교 3-3)



장려상 정 서 영 (새별초등학교 2-3)

## ■ 가작



가작 오 세 빈 (법무부가온어린이집 7세)

## ■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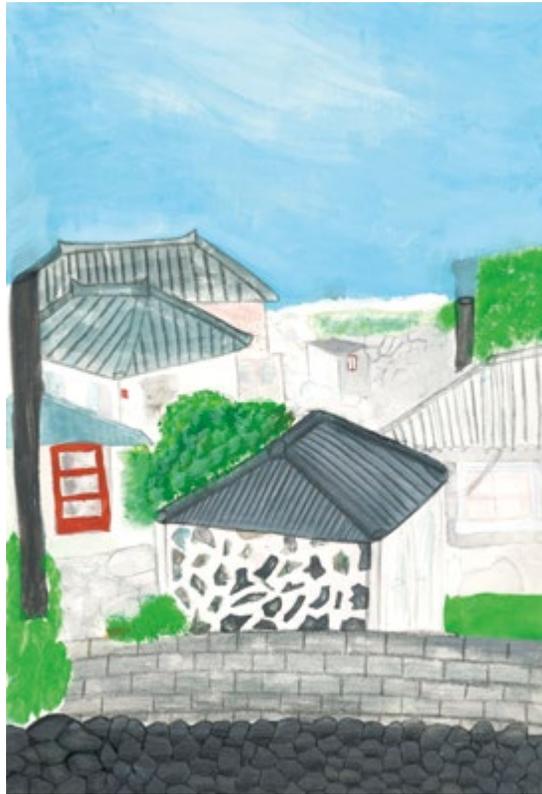


가작 박유현 (본촌초등학교 3-3)



가작 황류엘 (담주초등학교 4-1)

## ■ 가작



가작 이소윤 (무등초등학교 6-2)



가작 김진아 (본촌초등학교 4-5)



대상

# 차가운 별을 위한 기적

김 범 수 (고려고등학교 3-8)

외롭게 떠다니는 차가운 별  
차가운 별을 바라보며  
별뿔별에 소원빌 듯  
기적을 원한다

차가운 별이 눈앞에서 사라질때쯤  
또 다른 별을 찾아 떠난다  
사라져가는 별을 찾아 떠난다

또 다시 기적을 말한다  
쓰레기를 줄이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하며 걸만 번지르르한 말만..  
행동 없이  
기적을 바란다.



차가운 별이 사라져간다.

점점 더 많이 더 빨리

사라져간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건

사라져가는 차가운 별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행동을 하자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우리가 피하는 그 일에 있으니까





최우수상

# 그리운 나의 집

박 하 윤 (동신중학교 1-5)

미끄럼 타고 신나게 놀았던 그곳  
이제는 물로 변해버린 그곳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숨만 간간이 쉴 그곳

얼음은 물로 되지만  
물은 얼음으로 되어 다시 짓지 못할 내 집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곳이  
물이 되어 둥둥 떠내려간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리운 그곳  
그리운 나의 집

눈 내리는 겨울이었던 그곳  
햇볕만 내리쬐는 곳에  
내 눈물만 흐른다.  
그리운 북극곰의 집  
꼭 돌려줘야 할 그곳.





최우수상

# 꿈이 현실로

정 소 윤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4-1)

저 멀리 보이는 미래가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네  
상상 속의 꿈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 오네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네

희망과 꿈을 가지고  
현실로 살아가네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네

그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세상





우수상

# 미래의 꿈

이 서 아 (두암초등학교 6-2)

미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나?

위잉잉~ 로봇시대

슈우웅~ 하늘시대

푸웅덩~ 심해시대

어떤 미래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생각한 그대로

꿈은 현실이 된다.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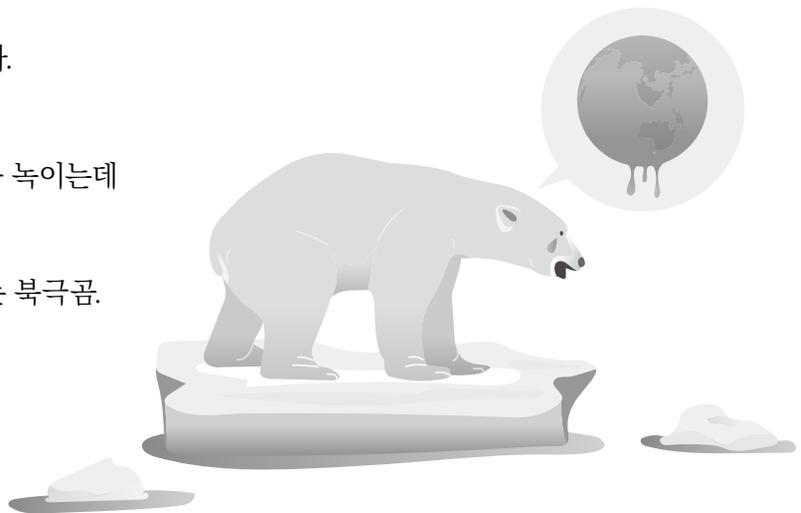
# 북극곰과 빙하

양 서 훈 (풍암초등학교 4-5)

북극곰이  
코카콜라 광고를 찍어  
TV에 나왔다.

북극곰은 웃고  
빙하는 녹고 있다.

사람들이 빙하를 녹이는데  
그들을 위해  
웃고 있어야 하는 북극곰.





우수상

# 빙하와 북극곰

정 하 윤 (계림초등학교 2-9)

하얀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세상  
그곳에서 살아가는 북극곰

차가운 빙하 위를 걸어 다니며  
먹이를 찾아 헤매는 북극곰

북극곰의 친구는 오직 빙하뿐이야

하지만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곰은 슬픔에 빠져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  
북극곰의 친구인 빙하를 지켜줘야 해





장려상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김유은 (하백초등학교 4-1)

나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암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서서평 님과 테레사 수녀님처럼 무서운 전염병이 닥쳐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의사.

환자를 최선을 다해 돌보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의사가 되는 꿈 말이다.

무엇보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 하고 싶다.

내가 암 치료법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친구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고는 검은색 옷을 입으시고는 급히 어딘가로 나가셨다.

나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날을 잊고 지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친구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던 날,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는데 친구가 덤덤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 하늘나라에 가셨대..”

아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모두 꿈만 같고 이모의 예뻐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친구의 마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아프고 외로울지...

엄마 없이 지내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게 슬플 것 같다.

엄마가 잠깐만 나가셨을 때도 나는 보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친구는 잠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친구가 걸으로는 밝고 힘차게 지내서 다행이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이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학교 미술 시간에 꿈을 그리고 꿈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나는 의사를 그리고 그 이유를 암으로 돌아가시는 사람이 없게 하고 싶다고 적었다.

친구가 내 책상 앞으로 와서 글을 보더니 말했다.

“유은아,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줘”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컥했다.

그리고 속으로 약속했다.

‘응, 내가 꼭 만들어서 환자들을 아프지 않게 해 줄게’

그때부터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다.

난 서서평, 테레사 수녀님처럼 유명해지는 건 바라지 않는다.

나의 이익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 장기려 선생님처럼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해 주는 그런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

모두가 암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는 나의 아주 크고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선 무척 힘들고 어떨 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나의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노력할 것이다.

나의 소중한 친구야, 비록 엄마가 너의 곁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고 외롭겠지만 엄마는 항상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말자~!

그리고 내 꿈을 응원해 줘.

그 꿈을 이루어서 너의 마음속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나 역시 너의 꿈이 무엇이든 항상 응원할 거야.

내 친구여서 고마워~



# 북극곰과 빙하

정 예 나 (장성중앙초등학교 5-2)

요즘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빙하가 녹고 있는 정도의 심각성과 그것을 대체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얻지른 것과 같습니다.

물을 얻지르면 사방이 물 천지가 됩니다. 이때 마른길레나 휴지로 닦으면 뽀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빙하가 녹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고 북극곰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우리는 얻지른 물을 닦는 것처럼 녹은 빙하를 수습할 수 있나요?

몇몇의 사람들은 빙하가 더 이상 녹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간다거나, 전기를 마구마구 씹니다. 또 산을 없애고, 아파트와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먹는 나무도 엄청 많이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자원을 낭비하고, 함부로 대하면 빙하도 녹고, 해수면은 더욱더 상승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는 가라앉고, 결국 모습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도 소멸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북극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빙하가 녹는 걸 막아야 합니다.

빙하가 녹는 걸 막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막는 방법도 알아야 하겠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메탄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는 차를 타는 걸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고, 조금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메탄가스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노력이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뜨겁게 만들지 않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다음으로 많은 양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장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먹고,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지구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의 열을 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빙하가 녹는 걸 막을 방법은 여기까지지만, 그 밖에도 대처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방법부터 실천해 갑니다.

우리 스스로 실천할 때 빙하가 보호되고 북극곰의 집도 보호됩니다. 더불어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북극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 내가 원하는 미래

오수아 (산정초등학교 6-10)

내가 원하는 미래는  
내가 반짝이는 샛별 같은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는  
내가 반짝이는 별 같은  
내 꿈을 이룬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는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는  
모두가 반짝이는 말을  
쓰는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는  
이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





장려상

# 미래

박 다 경 (문우초등학교 6-1)

미래는 우리가 주인공이다.

뮤지컬은 배우가 주인공이 되듯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인공

그러니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이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 미래의 꿈

박담희 (성덕초등학교 6-2)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베고 잘라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베고 자른 나무들로 우리 생활에서 쓰는 편리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또 많은 나무들이 잘리고 베이면서 세상에 나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나무가 아닌 나뭇잎들을 모아 그것들로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만들 가을에 떨어져 있는 마른 나뭇잎, 여름에 자란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을 이용해 만들 것이다.

우리는 나뭇잎들로 만든 것들을 학교, 집, 회사 등등 많은 건물과 시설에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잘리고 베이고 죽지 않고 그 나무에 있었던 나뭇잎으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죽지 않은 나무에서는 또다시 잎이 자라나서 그 잎으로 또 다른 필요한 것을 만들어 사용하며 자연 파괴도 막고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잎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잎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잎이 썩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잎 영양제가 발전할 것이다.

그러한 영양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꽃아서 쓸 수 있는 영양제 또 뿌려서 쓸 수 있는 영양제들도 쓸 것이다. 하지만 또 그러한 영양제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영양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영양제로 많은 잎들이 건강하고 빠르게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또 그 많은 영양제를 모든 나무에 뿌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환경지킴이 단체가 형성되며 환경지킴이 단체에서 나무들에 영양제를 주고, 지역 주민들과 많은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일을 많이 만들고 지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환경 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잎으로 만들 새로운 물건 등을 추천받아 연구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해 대형 마트나 시장 등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더 많은 나무에 종류와 잎 종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잎들로 물을 만들다 새로운 발견을 하여 또 다른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잎들로 물건만 만드는 것이 아닌 잎으로 많은 영양제들을 만들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잎으로 만든 영양제를 먹고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내 꿈은 수의사

김지호 (하백초등학교 4-4)

내 장래희망은 수의사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원에 많이 다니면서 크고 작은 동물들을 보면서 코끼리 같은 야생 동물에 관한 호기심이 생겼다.

운 좋게 2학년 때 동물원에서 활동하는 동물 사랑단 단원이 되었다. 동물 사랑단 활동을 하면서 직접 안아보며 동물의 부드러움에 반해 동물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다.

또 인간들이 개발을 해서 집이 사라진 사슴을 직접 만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개발뿐 아니라 기후 위기 때문에도 동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동물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동물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어서 지식을 쌓고 있다.

제인구달 박사님의 일생에 대한 책을 읽고 자신의 몸이 아파도 동물들을 위해 일생을 바쳐 활동하신 것에 감동받았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끈기가 필요한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동물들을 위해 용돈을 모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다.

수의사가 되면 야생 동물에게도 아픔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치료를 잘 해 주고 싶다.

야생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사육사가 많이 웃게 될 것이다. 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을 안겨 주고 싶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의사가 될 것이다.



## 가작

# 똑똑

서 소 망 (문화초등학교 3-1)

똑똑,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우리가 트는 에어컨이 빙하를 녹게 해요.  
우리가 버리는 비닐이 빙하를 녹게 해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빙하를 녹게 해요.  
우리가 먹는 고기가 빙하를 녹게 해요.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빙하를 녹게 해요.

똑똑, 지금 북극곰이 울고 있어요,  
우리가 달라지면 북극곰이 웃을 수 있어요.





# 북극곰

고 현 서 (서림초등학교 3-1)

곰아 곰아~ 북극곰아  
잘 지내고 있는거니?

햇볕이 뜨거워지는 날에는  
니가 생각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니가 걱정돼

곰아 곰아~ 북극곰아  
빙하가 더 이상 녹지 않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볼게  
재활용을 시작해볼게

곰아~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기로 약속해!





# 빙하와 북극곰

최유안 (오정초등학교 6-1)

우리는 살면서 일회용품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을 쉽게 쉽게 쓰는데요, 우리가 많이 일회용품 같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면 저 멀리에 있는 빙하에 영향이 갑니다. 우리에게 무섭거나 귀여운 북극곰도 당연히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그 쓰레기를 태우는데요, 그때 나오는 연기가 지구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게 됩니다. 또는 바다에 쓰레기가 풀어지게 되면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빙하가 녹으면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보면 북극곰의 먹이가 사라지겠죠? 마치 우리의 땅이 오염되고 음식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만약 북극곰이란 동물이 사라지면 인간도 어떤 이유에서든 분명 피해를 받을 거예요. 또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들이 물에 잠기겠죠. 우리가 빙하와 북극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크고 작은 게 많지만 가장 쉬우면서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예요.

환경 오염을 막으면 인간들도 좋고 동물들도 좋아요.

여러 멸종 위기 종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오염을 멈추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극곰과 빙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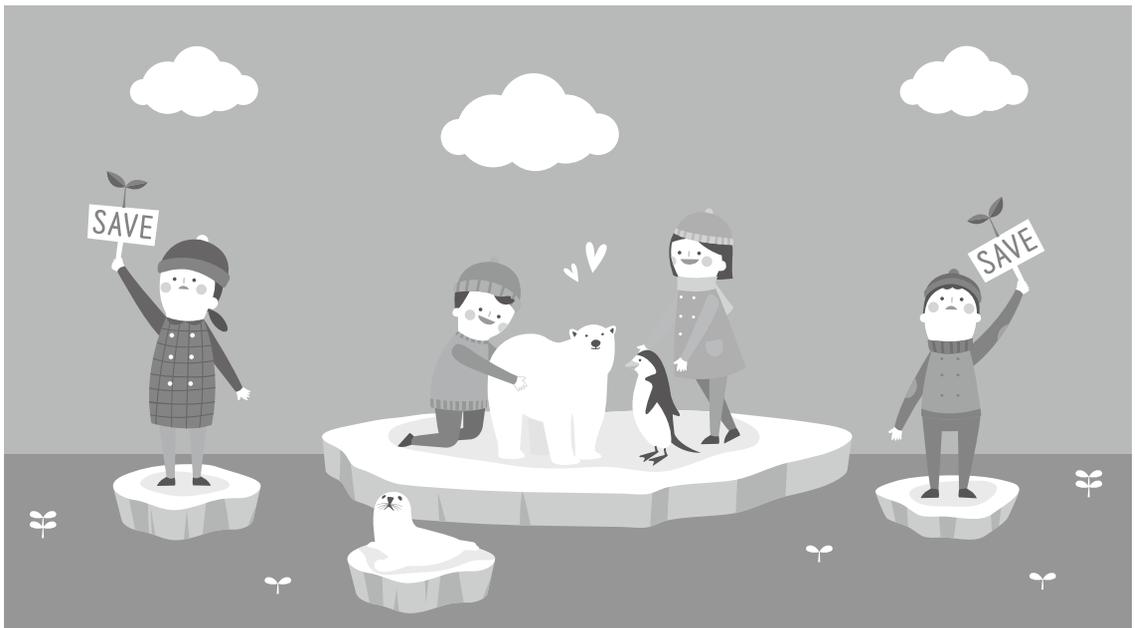
가작

# 빙하

강승우 (성덕초등학교 3-4)

빙하가 녹고  
있어요.  
북극곰이 살살  
줄어들고 있어요.

빙하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해요.



# 원 고 모 집

본원에서 발간하는 무등문화 제30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주제와 형식은 자유로우며 채택된 글은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이 지급됩니다.  
내 고장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향토문화연구사례
- 문화유적·유물·민속·전설·민요·가사 등 발표되지 않은 자료
- 고서·고화 사진
- 문예작품(시·수필·소설·공트·평론 등)
- 기타
- 대상 - 출향 향우 및 광주시민 모두
- 원고매수 제한 없음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4층 (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or.kr> / E-mail. [moodri@hanmail.net](mailto:moodri@hanmail.net)

# 북구문화원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 회원가입 및 특전



### 회원이 되시면

북구문화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을 우송해 드리고 본 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초대되며, 본 원에서 공연, 전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강좌 수강시 50% 할인 혜택과 기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가입방법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으셔서 우편으로 북구문화원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고 후 원금은 회원가입신청서에 명기된 성명으로 농협계좌 607-01-110747(예금주:광주북구문화원)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년간 후원회비는 20,000원이며, 전화 527-7701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4층(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 (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or.kr> / E-mail. [moodri@hanmail.net](mailto:moodri@hanmail.net)

## 향토자료를 수집합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자 그 동안 각 문중이나 단체에서 소장해 왔던 광주시 북구지역의 과거 기록이 담긴 유물, 전래풍속 등을 수집, 보존하고자 합니다.

1.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
2. 북구지역의 과거 선인들의 생활 상을 담은 기록(고서)
3. 북구지역의 전래풍습, 민요, 전설, 일화 등
4. 북구지역의 토박이로서 선조들의 기록이 담긴 족보
5. 고증이 되지 않은 각종 문서
6. 기타 북구의 역사



# 無等文化

제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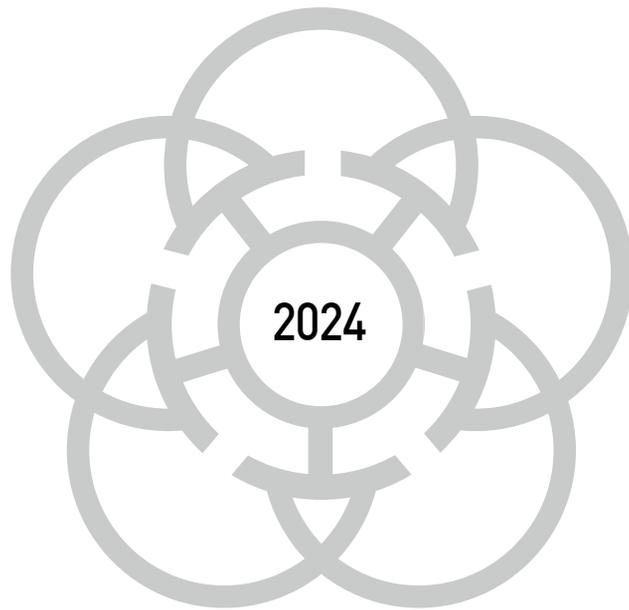
2024년 12월 29일 인쇄  
202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오 동 오  
편집인 : 김 정 희, 김 희 영

발행처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전화. 062) 527-7701  
팩스. 062) 527-7702

인 쇄 : 한길인터라인 (T. 062-956-6812)

**비매품** 이 책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발행인의 승낙없이 무단 복제 및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光州廣域市北區文化院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Tel. 062) 527-7701 Fax. 062) 527-7702  
<http://gjbukgu.or.kr>



ISSN 3059-1112

비매품/무료